

대한민국 경제와 한민족의 DNA

金錫東



차 례

- I . 대한민국 현대경제사 - 기적의 드라마
- II . 유라시아 기마민족사 - 노마드의 DNA
- III . 한민족의 고대 역사 - 사라진 역사

맺음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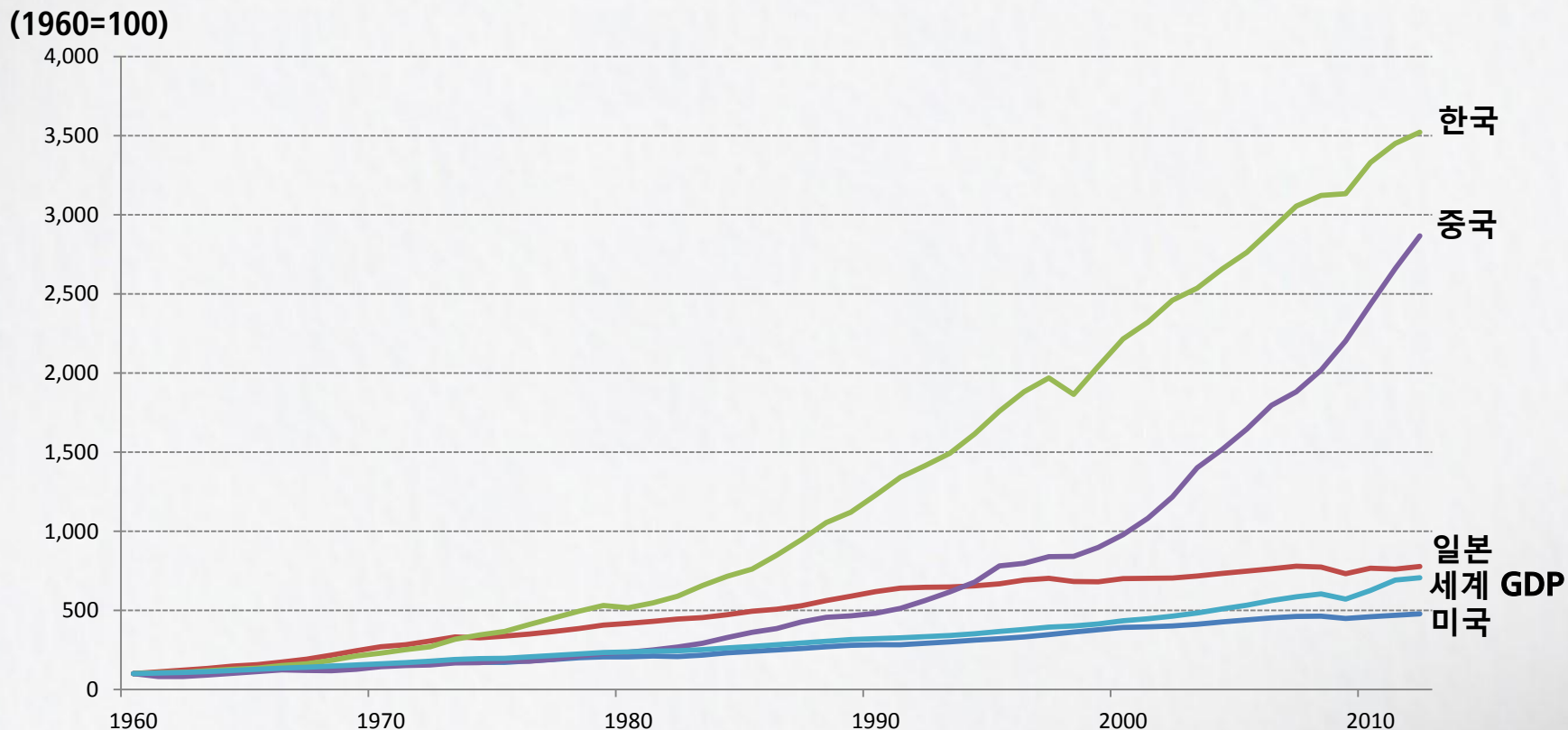
I 대한민국 현대경제사 -기적의 드라마

1. 한강의 기적
2.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
3. 기적의 원동력

1. 한강의 기적

- 대한민국은 1960년 이후 세계사에 기록될 독보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
- 1960~2014년 동안 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37.6배 증가 (세계 GDP 약 7.3배 증가)
→ 세계 13위 경제대국을 건설

주요국의 실질 GDP 추이 (1960년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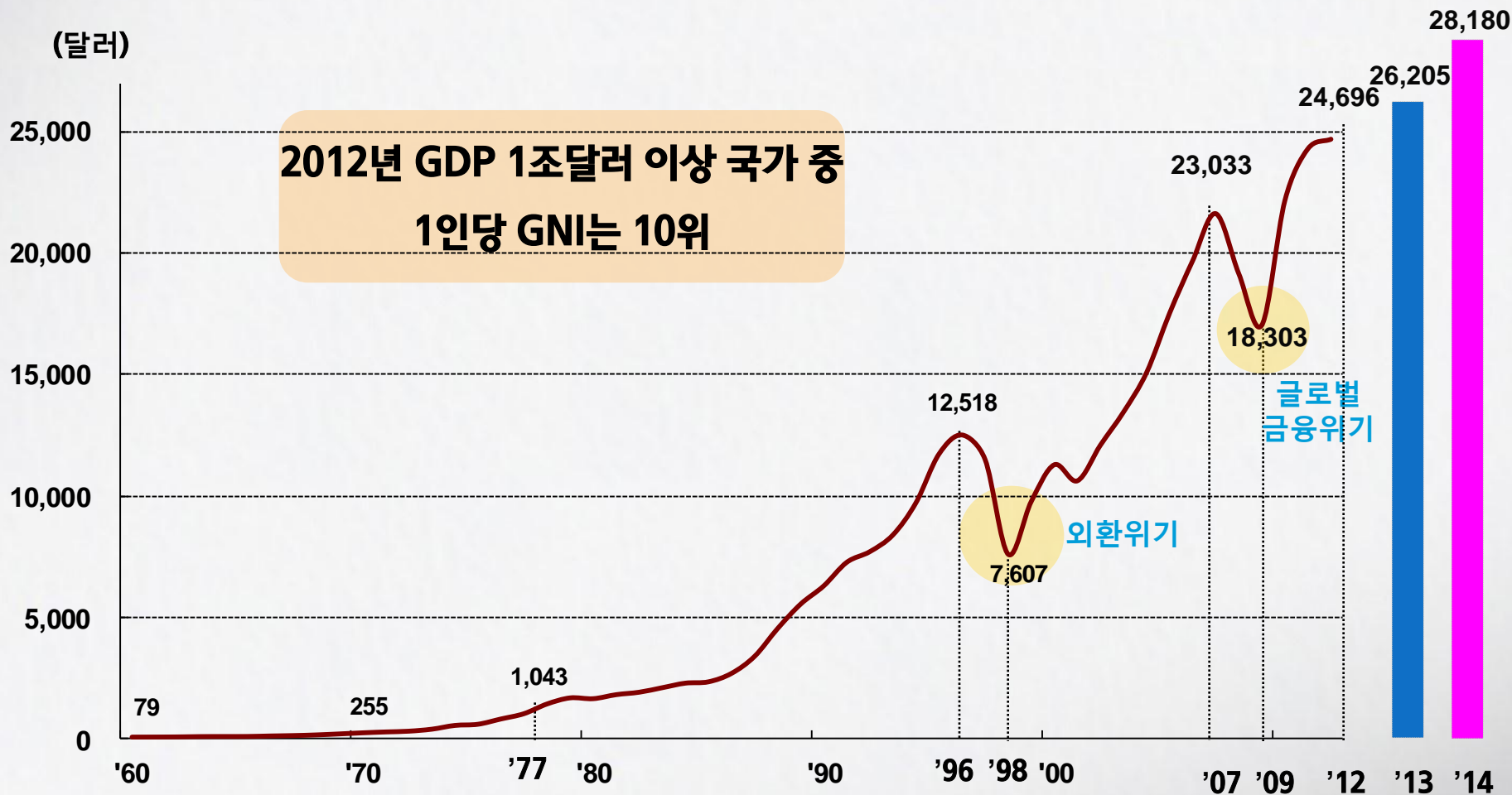


주: 1. 1960년 GDP=100으로 하여 각국 실질 GDP의 추이를 표시

2. Angus Maddison,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(2010); IMF *World Economic Outlook* (2015.4) 참조

1 1인당 국민소득(GNI) 3만불 시대를 향하여

- 1인당 국민소득(달러): 60년 79 → 07년 23,033 → 12년 24,696 → 13년 26,205
→ 18.8배 성장 (실질 기준) ※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은 28,180달러 (잠정치)
- 1인당 국민소득 순위: 1960년 101위(125개국중) → 2013년 2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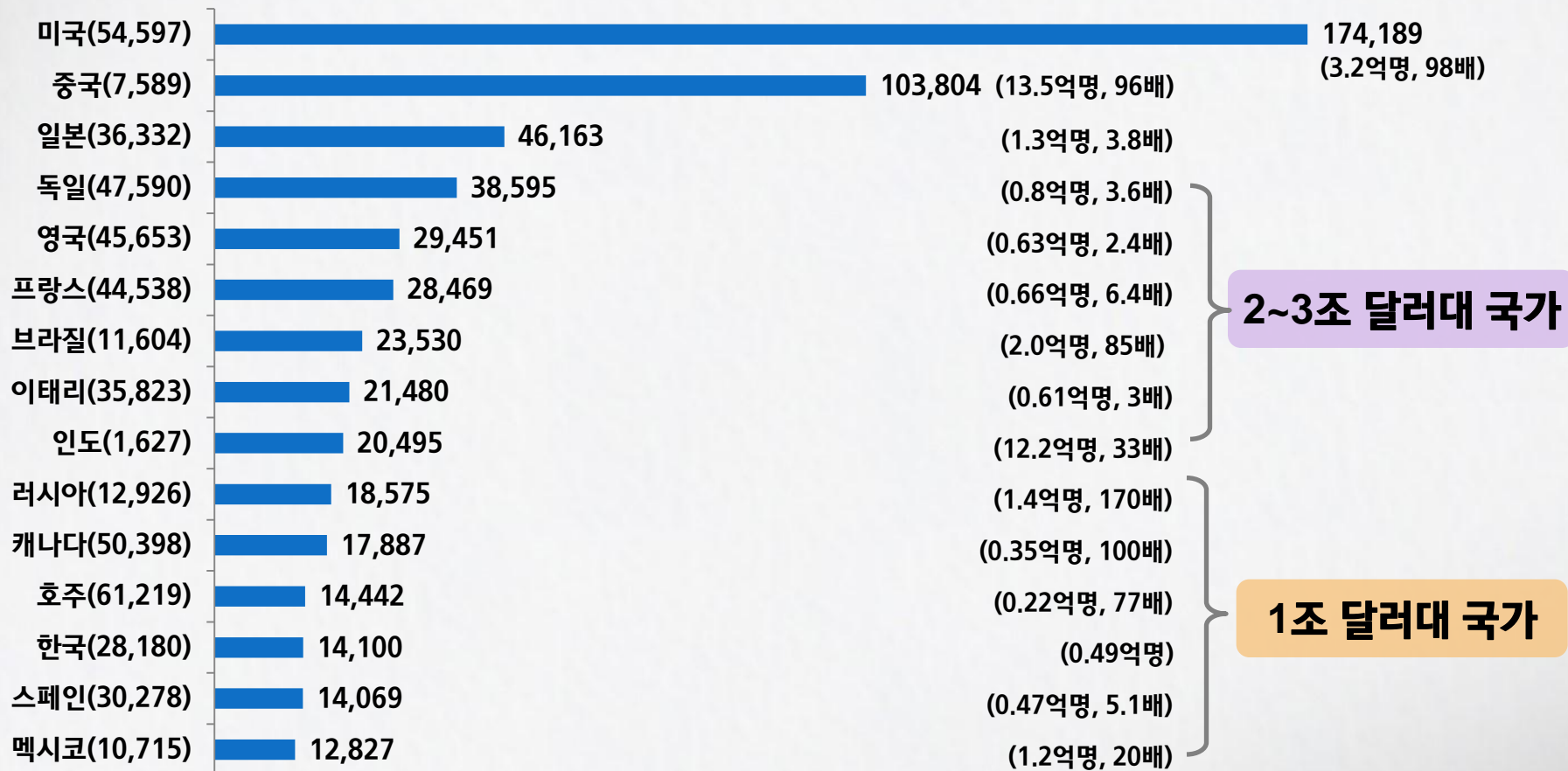


2 세계 속의 한국경제

-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1조 4,100억달러로 세계 13위

주요국의 GDP 규모 (2014년)

(단위: 억달러)



주: 국가명 뒤의 ()는 1인당 국내총생산(per capita GDP), 배율은 한국면적 대비 비율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 (2015.4) 참조, 인구 · 면적: CIA(The World Factbook)

3 세계적인 고성장 사례와의 비교

스페인(16세기)

단위: 백만 달러
(실질 GDP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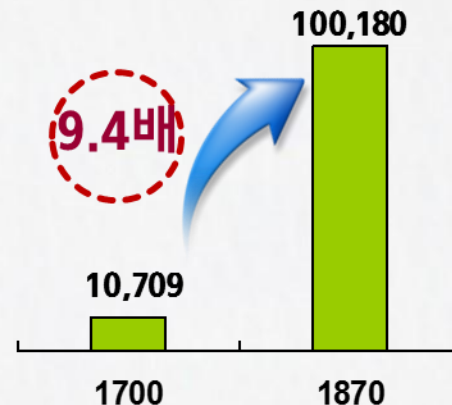
세계GDP 1.3배 증가

네덜란드(16~17세기)



세계GDP 1.5배 증가

영국(18~19세기)



세계GDP 3.0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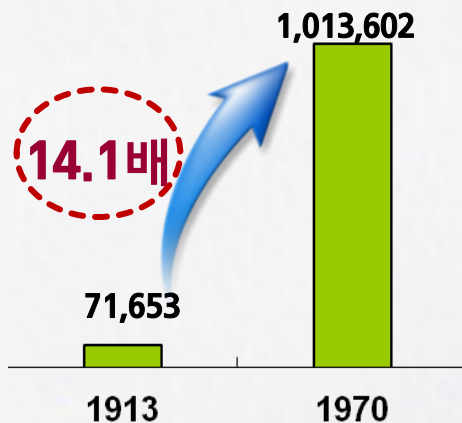
미국(19~20세기)

단위: 백만 달러
(실질 GDP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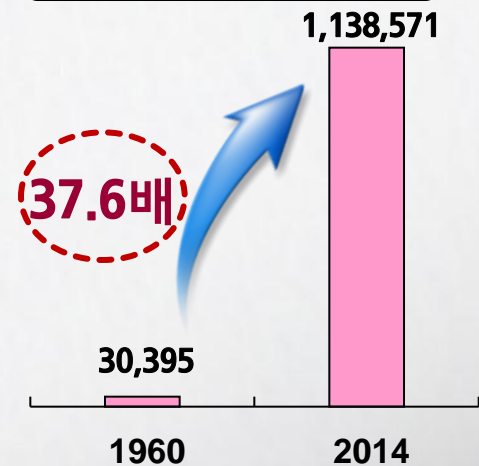
세계GDP 4.1배 증가

일본(19~20세기)



세계GDP 5.0배 증가

한국(20~21세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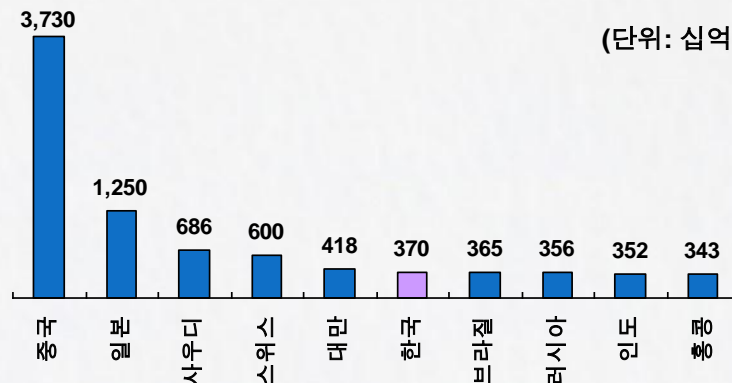
세계GDP 7.3배 증가

2.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

- 한국은 반세기만에 「산업화」와 「민주화」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
- OECD출범후 `원조 수혜국`이 `원조공여국`으로 바뀐 최초 사례
- 세계 6번째의 외환보유국가

주요국의 외환보유고 현황

(단위: 십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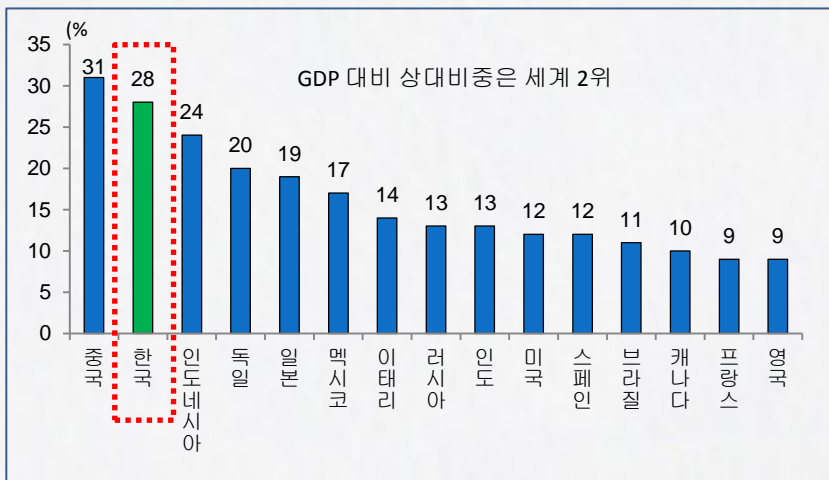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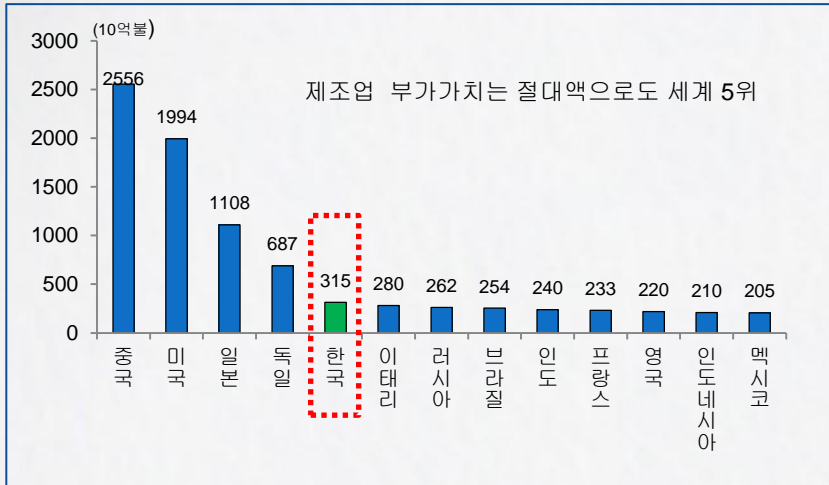


주: 2015년 1분기말 기준
자료: IMF, 주요국 중앙은행



1 제조업 강국

- 세계 5대의 제조업 강대국[12년 미 CSR]
 - ✓ 지식집약적 제조업(IT, SW, 반도체 등)의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 (상장기업 기준)



주력 수출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(2013)

품목	점유율(%)	순위
DRAM	65.5	1
스마트폰	30.1	2
자동차	9.8	5
조선	30.8	2
디스플레이	48.1	1
철강	4.1	6

2 세계 7위의 수출대국

-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,156억달러로 세계 7위
 - ✓ 2009년 세계 9위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, 2010년부터 7위를 유지
 - ✓ 1950년 이후 수출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국가는 한국, 일본, 중국 등 아시아 3개국에 불과

세계 수출순위 (1950~2013)

	1950	1960	1970	1980	1990	2000	2010	2013
1	미국	미국	미국	미국	독일	미국	중국	중국
2	영국	독일	독일	독일	미국	독일	미국	미국
3	캐나다	영국	영국	일본	일본	일본	독일	독일
4	프랑스	프랑스	일본	프랑스	프랑스	프랑스	일본	일본
5	독일	캐나다	프랑스	영국	영국	영국	네덜란드	네덜란드
6	벨기에	네덜란드	캐나다	사우디	이탈리아	캐나다	프랑스	프랑스
7	호주	일본	이탈리아	이탈리아	네덜란드	중국	한국	한국
8	네덜란드	벨기에	네덜란드	네덜란드	캐나다	이탈리아	이탈리아	이탈리아
9	브라질	이탈리아	벨기에	캐나다	벨기에	네덜란드	러시아	러시아
10	이탈리아	스웨덴	스웨덴	벨기에	홍콩	홍콩	영국	홍콩
	한국(85위)	한국(88위)	한국(43위)	한국(26위)	한국(11위)	한국(12위)	7위	7위

주: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수출액이 급증한 덕분에 2008년, 2010~2013년 10위권에 진입

3 해외 건설: 초대형 프로젝트, 플랜트 수출시장의 강자

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

- 항구, 기반시설 건설 : 수심 10m 바다 매립
* 길이 8km, 폭 2km 매립
- 규모(9.3억불) : 한국 최대, 당시 세계 최대
* '76년 한국 정부예산의 30%, 수출의 12%

리비아 대수로 공사

- GMR (Great Man-made River) Project:
사하라의 지하수를 북부 지중해 공급
* 4,200km의 송수관 건설 : 1단계(' 83, \$38억),
2단계(' 90, \$61억), 3단계(' 98, \$51억)에 걸쳐 진행

-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천억 달러 돌파('12.5)
✓ 분야별 수주액: 플랜트 건설(2,683억달러, 전체의 54%),
건축(24%), 토목 (18%), 엔지니어링 등 기타 (4%) 순
- '1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52억달러로 주요 품목 수출액
(반도체 571억, 석유제품 528억, 자동차 487억)을 상회

■ 세계 6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(2012년 기준)

✓ (09년) 12위, (10년) 7위, (11년) 7위, (12년) 6위

✓ 중동 지역 매출은 1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1 위

	국가	업체수(개)	점유율(%)
1	스페인	12	14.3
2	미국	33	14.0
3	중국	55	13.1
4	독일	4	8.5
5	프랑스	4	8.5
6	대한민국	15	8.1
7	이탈리아	17	6.1
!	!	!	!
12	호주	4	2.0

출처 : ENR(2013.8월)

* 미국의 건설 전문지로 매년 세계 250대 해외 건설사 순위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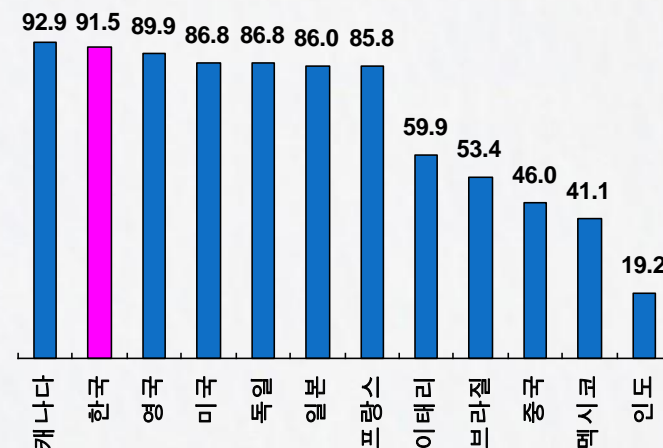
4 혁신하는 경제

- IT · 모바일 트렌드를 선도
 - ✓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(25.3 Mbps)
- “Most Innovative Country in the World”
: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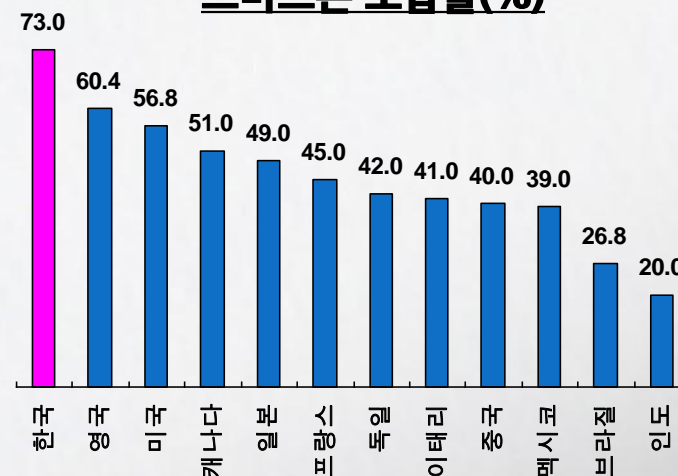
블룸버그 혁신지수 순위 (2014)

종합 순위	국가	분야별 순위						
		R&D	제조 능력	생산성	첨단 기술	교육 효율성	연구 집중도	특허 활동
1	한국	3	2	33	3	3	6	2
2	스웨덴	4	22	7	5	13	8	26
3	미국	10	24	10	1	37	12	5
4	일본	5	6	14	8	30	9	3
5	독일	9	3	20	6	25	17	6
6	덴마크	6	56	6	17	27	3	14
7	싱가폴	17	14	15	14	24	4	34
8	스위스	8	16	3	9	35	22	29
9	핀란드	2	21	12	32	5	2	15
10	대만	7	-	30	2	2	5	1

인터넷 사용인구 비율(%)



스마트폰 보급률(%)



주: 휴대폰 소유자 대비 비율 (%)

5 한류(Korea wave)와 스포츠

- 한국 대중가요(K-POP)가 대표적 문화상품으로서 전세계로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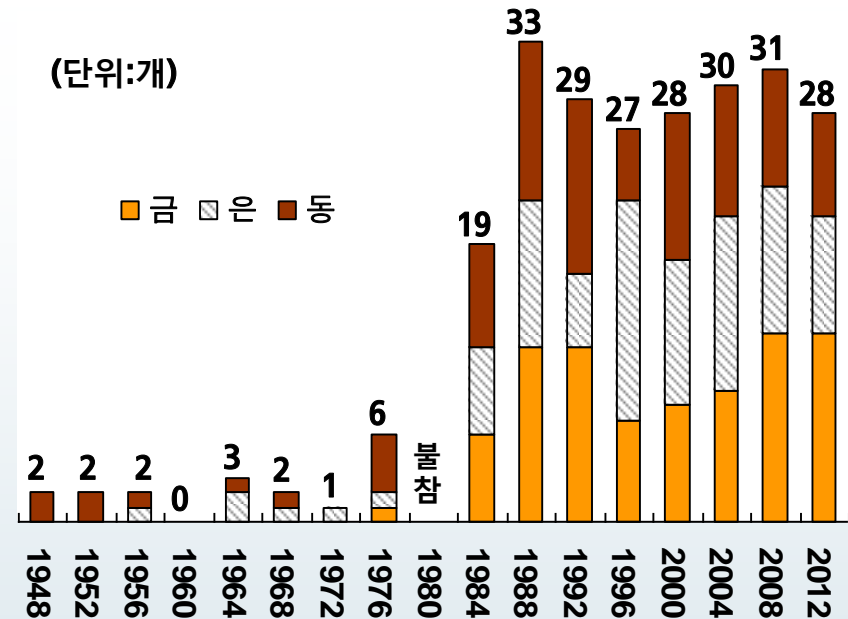
- ✓ Forbes : “세계를 휩쓸 20개 트렌드”
- ✓ 상품별: 드라마, 음악에서 영화, 게임으로 확대
- ✓ 지역: 아시아를 넘어 미주, 유럽 등으로 확산

- 독일 방송 Deutschlandradio (2013.3)
: “한류는 세계를 정복중”
- BBC(2013.8): “중동에 평화를 주는 K-POP”
- 프랑스 TV TF1(2013.3)
: “한류 현상은 모든 젊은 세대에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”
- 후진타오(2005)
: “바쁜 일정으로 대장금 전편을 못 본 것이 부끄럽다(shame)”
- Global Soft Power Ranking(Monocle)
: “K-POP과 한류외교로 상승”
✓ 19위(10) → 11위(12)

- 고성장에 따른 경제력, 체육 인프라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

역대 하계 올림픽 성적 (메달 수)

(단위:개)



- 1948년 런던올림픽 첫 출전 이후 1976년 몬트리올에서 최초로 금메달 획득 (레슬링)
- 1988년 서울올림픽 4위,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, 2012년 런던올림픽 5위 등

3. 기적의 원동력



세계 10위권대의 선진 경제국가로 부상

<참고> 기적을 만들어낸 한민족의 DNA

경쟁·시장친화적 문화

- 경쟁에 친숙한 문화
- 시장에 대한 인정과 기대

자립심이 충만한 사회 분위기

- 개인을 기초로 한 강한 자부심 : 天孫
- 척박한 자연환경에서의 생존 본능

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던
기마민족·초원제국 전사들의
DNA를 공유

강한 성취동기와 의지

- '하면 된다'는 성취 문화 ('신바람')
-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

대외지향성

- 전 세계가 한국인의 활동무대
- 세계 최고의 해외유학·국제이동인구 비율

Ⅱ 유라시아 기마민족사 – 노마드의 DNA

Ⅱ-1. 기마유목민족의 활동

1. 유라시아 대초원 지역
2. 대초원에서 살아가는 기마유목민
3. 기마유목군단의 등장
4. 최초의 기마유목군단 : 스키타이(Scythian)

1. 유라시아 대초원지역

■ 유라시아 스텝 대초원지역

- 아시아 고원 지역 (천산 · 알타이산맥, 파미르) 외는 동서 8,000km가 대초원, 사막

※ 헝가리 ~ 우크라이나 ~ 남부러시아 ~ 중앙아시아 ~ 만주

서부초원	동부초원
알타이산맥~대흥령산맥 (남북600~800km)	다뉴브강~흑해~볼가강~알타이산맥 (남북320~950km)

■ 유라시아 대초원은 자연조건이 매우 열악

- 비가 적어 농경이 어렵고, 뜨거운 여름(+40℃)과
혹한의 겨울(-40℃)이 교차

➔ 목초지를 찾아 가축과 함께 취락지를
이동하는 유목생활을 영위

■ 스텝역사의 중심지 몽골고원

- (동)대흥안령산맥,(서)알타이산맥,(남)고비사막,
(북)바이칼호수 - 272만km² , 해발평균 1.5km





2. 대초원에서 살아가는 기마유목민

- 유라시아 대초원의 엄격한 자연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
 - ① 용감하고 ② 유능한 독특한 인간유형을 형성 -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 - 사회전체가 풍부한 자립심을 가지는 가치관
- 대초원의 유목생활에서 말은 교통과 생활의 주된 수단으로 기마유목민이 등장
 - ➔ 이동은 물론 모든 생활이 말을 기초로 이루어짐
 - ➔ 몽골의 말은 하루 200km를 주파
- 동 · 서 · 중앙아시아 대초원 및 유럽을 무대로 활약
 - ➔ 유목민은 문자가 없어 역사기록 취약 (8C초 돌궐문자가 최초)
 - ➔ 야만, 비문명, 파괴자 등으로 역사가 왜곡



3. 기마군단의 등장

- 기마유목민은 말 · 활을 무기로 기마군단을 출현시킴

➔ BC 800년경 출현 ➔ 2500년간 세계사를 주도

- 총·화기 등장 전 가장 강하고 효율적 기동군단

- 조랑말 · 나무안장 · 등자

- 복합곡궁 · 삼각철화살

- 전투식량 · 전투갑옷

→ 막강한 전투력

- 대초원을 무대로 가공할 기동력으로 전세를 장악

- 현실적인 전진 · 후퇴 전술 구사로 전투력을 극대화

※ 1126년, 宋 보병 2,000명이 금기병 17기에 대패

※ 1637년, 조선보병 4만이 청기병 300기에 대패

**Force = Mass X
Acceleration**

1687, I.Newton 제2법칙



말안장



등자



활



화살촉

4. 최초의 기마군단 : 스키타이(Scythian) : BC 7 ~ BC 2 세기

- 중앙아시아에는 BC12세기 무렵 유목민 활동시작, BC9세기 말의 기동력 활용한 전투집단 등장
- 아시아 유목민이 BC 8-7세기 볼가강에 진출, 우크라이나 · 중앙아시아에 강대한 스키타이 건설
- BC 674 메데 정복
- BC 514 페르시아 다리우스 70만 대군 제압
- BC 4세기 전성기, BC 3세기경 사르마트에 멸망

< 헤로도토스의 Histories가 기록 >

“스키타이는 아시아 유목민 “

“그들이 추격하는 자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다.”

“도시도 성채도 갖지 않고 어디를 가나 집을 가지고 다니며 모두 말 위에서 활을 쏘 줄 알았다.”

< 우리와의관계 >

- 대규모 고분 · 金文化 · 암각화
- 청동무기 · 마구, 동물장식

※ 스키타이 - 흉노 - 신라의 유전자 친연성



◆ 스키타이 기마유목문화의 성격

- 최초로 초원을 지배한 기마유목민
- 이동성·집단성·전투력이 특징인 군사집단
- 스키타이의 생활풍습 · 전술·전법은 흉노·선비·돌궐·몽골 등과 공통점



Ⅱ 유라시아 기마민족사 – 노마드의 DNA

Ⅱ-2. 기마유목민족이 건설한 국가



1. 흉노(Hunnu Empire) : BC 209~AD 155

- 흉노는 스키타이를 잇는 기마유목민 국가로 BC 3세기 후반에 몽골고원을 통일
 - ※ 전국시대에 몽골지역의 흉노는 “호(胡)”, 만주지역 민족은 “동호(東胡)”로 지칭
- 흉노는 연, 진(시황제), 한(고조 · 무제)등과 격돌, 대제국 건설(620만km²)
 - **두만** 선우가 부족을 통합하고 진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
 - **목특** 선우가 즉위(BC 209)하여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완성
 - ※ 진시황은 흉노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자 장성을 건축(몽념)
- 한과의 전쟁중에 질지의 서흉노(BC 56), 호한야의 동흉노(BC 58)로 분열
 - 서흉노는 멸망 (BC36), - 동흉노는 남흉노 · 북흉노로 분열 (AD 48)
 - 남흉노는 중국에 이주 · 동화, 북흉노는 후한 · 선비에 멸망(AD 151)

◆ 흉노는 고조선에서 분리, 고조선에 붙었다 배반하기를 되풀이. 목특이 전흉노의 기병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기습공격. 조선이 미약해지고, 속민 선비도 선비산으로 도주(조선상고사)

◆ 흉노 시조는 고조선인 (민족정사)

◆ “한무제가 동쪽으로 조선을 정벌해 흉노의 왼쪽 팔을 끊다” (한서)



<터키 역사교과서의 흉노제국과 훈제국>



<참고> 동서문명의 교역로 : 실크로드

- 고대로부터 유라시아를 연결하여 인간의 삶과 문명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 교역로

① 초원길(초원실크로드) : 유라시아대륙 북쪽

초원지대에서 유목민이 이용

- 동유럽 - 카스피해북안 - 카자흐초원 - 준가얼분지 - 몽골초원 - 만주 - 한반도

② 오아시스길 : 중세까지 동서 육상교역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한무제가 개척

※ 장건, 고선지

- 천산북로 : 둔황 - 텐산산맥 북쪽
- 천산남로 : 둔황 - 텐산산맥 남쪽
- 서역남로 : 둔황 - 타클라마칸사막 남쪽

③ 바닷길(바다실크로드) :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술의 발달로 개척한 중세 이후 가장 활발한 교역로

- 아테네 - 홍해 - 인도양 - 동남아 - 중국



<실크로드 중국 지형>



1(흉노)-1. 훈족(The Hun) : AD 375~455

- 흉노 멸망 후 잔존 세력이 서진하여 유럽에 훈제국을 건설 (AD375)
 - 역사에서 사라진 흉노는 약 4백년이 지난 4세기말 로마인에 혜성같이 등장
 - ※ 나무안장, 등자, 복합곡궁, 삼각철화살 등 신무기로 무장한 공포의 기마군단
 - AD 374경 **발라미르**가 유럽을 파죽지세로 공격 (볼가 · 돈강을 건너 동고트 점령, 드네프르를 건너 서고트 축출)
 - AD 400경 **울딘**이 유럽을 초토화 → 고트족이 헝가리 · 이탈리아 등지로 피난 (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초래)
- AD 434 아틸라(Attila)가 왕으로 등극
 - AD 441 동로마제국과 전쟁 선포 → 라인강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(375만km²)
 - AD 451 서로마제국과 전쟁 선포 → 갈리아 공략, 라인강 건너 메츠 점령
 - AD 452 이탈리아 침공 라인강~발트해~카스피해~도나우강~지중해를 잇는 유럽 최강국가 건설
- AD 453 아틸라사후(※Ildico) 급격히 쇠퇴

◆ ZDF TV 다큐멘터리

비밀스런 아시아의 초기 역사에서 훈족의 실제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. 세인의 주목을 끈 고고학적 발굴물이 그들의 원래 고향은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. ... 한국의 작은 도시 경주 근교의 묘에서 부장품으로 점토상이 발굴되었다. 말을 탄 사람 뒤에 흔치 않게 생긴 술이 실려 있는 기마상. 이 술은 똑바로 세워 말 탄 사람의 등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. 이런 형태의 그릇은 지금까지 이곳과 훈족의 이동경로에서만 발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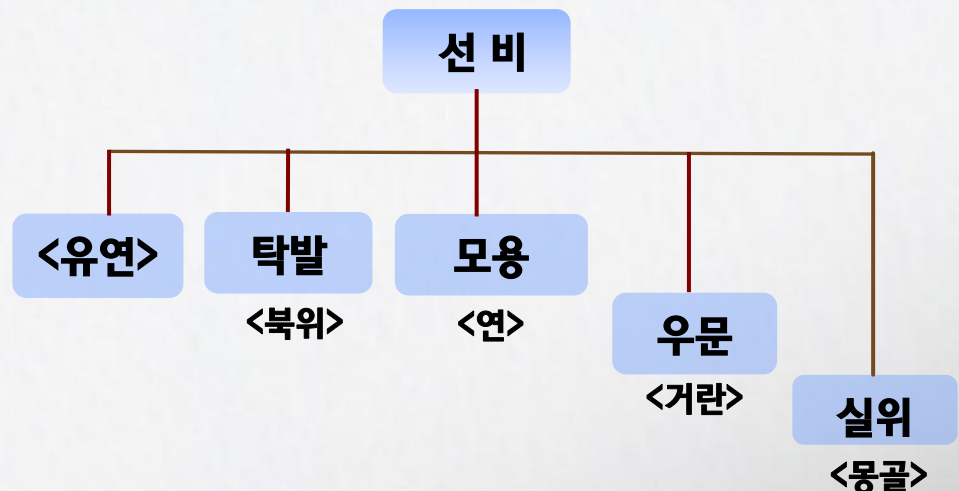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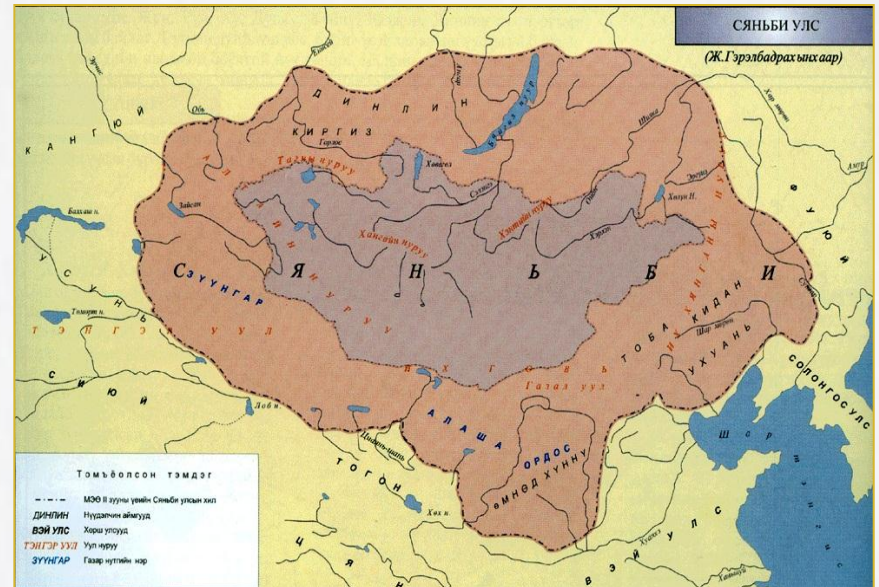
◆ 동이족의 편두풍습이 존재



2. 선비(Xianbei Empire) : AD 1~3세기

- 동호일파로 대흥안령(=선비산)에서 목축, 수렵생활을 하다 1세기 초 흉노의 지배를 받음
 - 흉노분열 후 몽골지역을 점령
- AD 156 「단석괴」 시대 대제국 건설
 - 몽골고원-바이칼호-만주-오르도스 일대를 장악(490만km²), 후한침략
- 단석괴 사후 분열 → 내몽골에 할거
 - 모용부 (대릉하유역) → 연(5호16국)
 - 우문부 (시라무렌강유역) → 거란
 - 단부 (우문부 남쪽) → 모용부
 - 탁발부 (내몽골호화호특) → 북위
- 진 통일 후 혼란기에 「흉노·비·갈·저·강」 5개 민족이 「5호16국시대」 전개 (AD 304~439)

- ◆ 「후한서」는 선비를 동호(고조선 별칭)의 후예라 기록
- ◆ 수나라 양견, 당고조 이연은 선비족 출신



2(선비)-1.유연, 전 · 후연, 북위

<유연(330~555)>

- 유목민 최초로 『카간』(可汗)칭호 사용
- AD 330 **차로고이**가 국가기반 건설
- **사륜** (402~410)이 강성한 국가건설
 - **고구려 등과 함께 북위를 포위·대립**
- 돌궐 등의 공격으로 멸망

<전연(337~370), 후연(384~409)>

- 선비족 모용부가 건국한 5호16국의 하나
 - **모용황은 고구려를 침공(342)**
- 전진에 멸망 후 모용수가 재건, 북위에 멸망

<북위(386~534)>

- AD 386 탁발규가 북위 건국
- AD 439 탁발도가 5호16국 시대를 종식, 화북을 통일하여 북위를 건국
 - **남북조시대의 개막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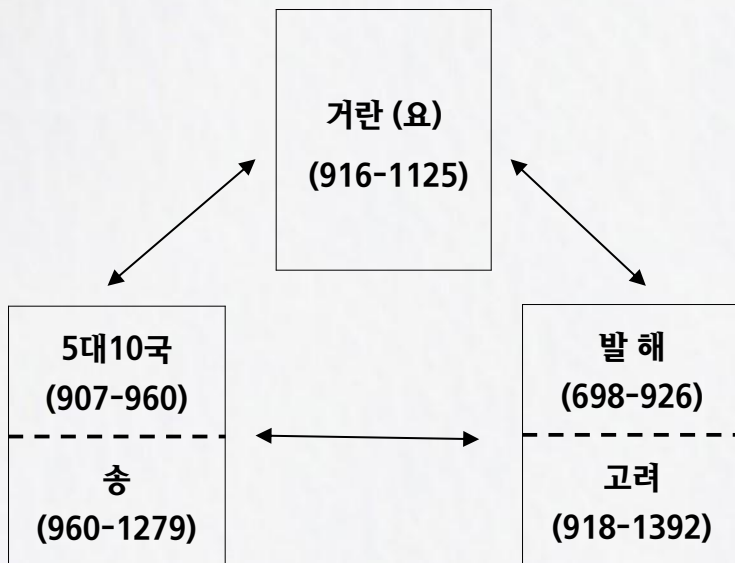
<선비족 무덤벽화 무사도, 조양>



<고구려 무용총 수렵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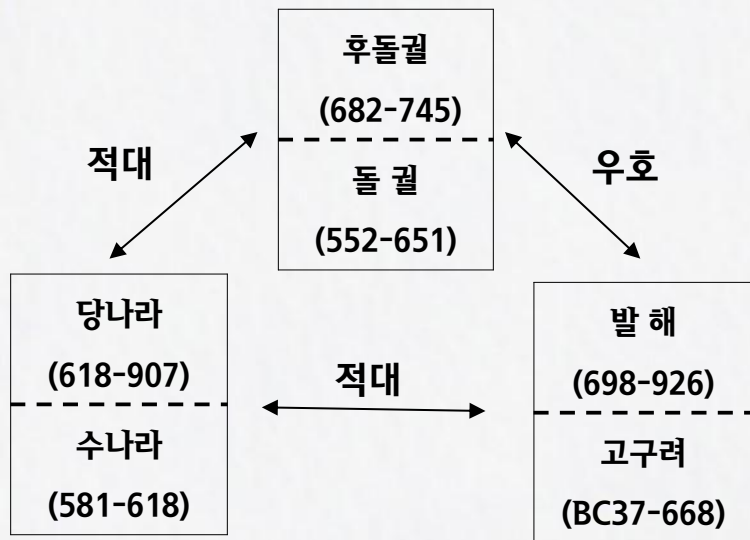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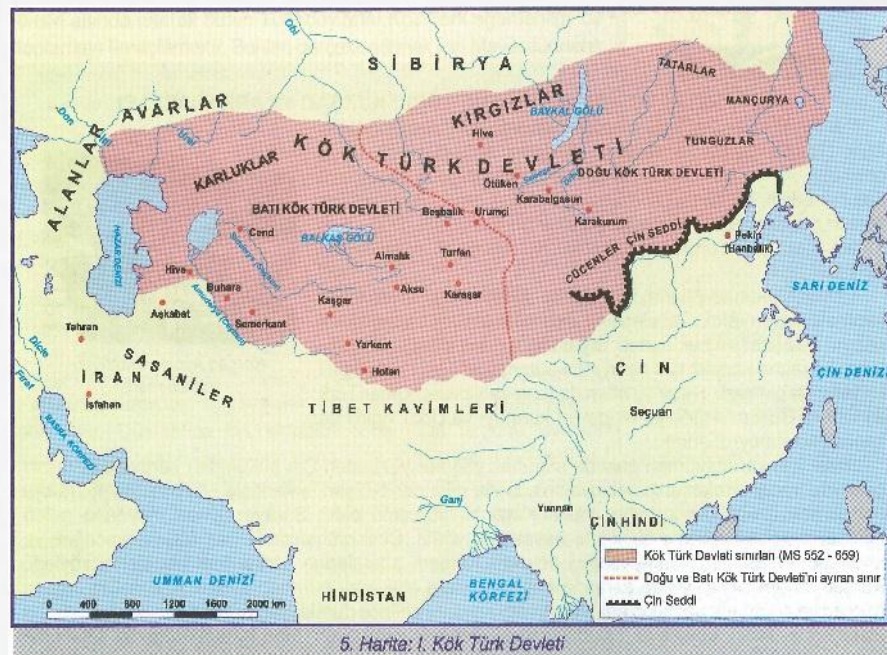
2(선비)-2.거란(Kidan State) : AD 916~1125

- 동호의 후손, 선비족의 한 그룹으로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발흥
- AD 916 **야율아보기**가 키타이국 출범
 - AD 926 발해국 멸망, AD 947 「대요국」
- AD 993~1018 고려 침입 (1~3차)
 - ※ 1차 침입시(993) 서희 : 소손녕의 담판
- AD 1125 여진족 금나라에 멸망



3. 돌궐(Turkic State) : AD 552~745

- 흉노 후 선비, 유연, 돌궐이 몽골지역 장악
- AD 552 「부민카간」이 「돌궐」 건국
 - 터키 건국 1400주년 기념제 : 1952년
 - 유라시아 동서·남북에 대제국 건설
 - 수·당과 대립, 동로마 제국과 교역
- AD 582 동(몽골고원)·서(중앙아시아) 돌궐 분열
 - AD 630·651년 당에 멸망 (당 : 1000만km²)
- AD 682 「쿠틀룩」이 재건 (1040만km²)
 - AD 720년경 「빌게카간」때 최전성기
 - AD 745 위구르·당·티베트 협공으로 멸망



◆ 돌궐제국의 성격

- 기마유목문화의 완성기
- 유목민족 처음으로 문자 기록 (돌궐문자)
- 세계사상 처음 유라시아에 대제국 건설
- 서돌궐이 서진하여 셀주크제국(1037)
 - 오스만제국(1299) 건설 → 터키가 계승



3(돌궐)-1. 위구르(Uyghur State) : AD 745~840

■ 몽골고원 · 중앙아시아 일대의 투르크계

위구르인이 세운 투르크계 국가

※ 철륵(鐵勒:수 · 당시대 투르크계 연맹체)
에서 돌궐 · 위구르 · 설연타등이 유래

■ 돌궐제국 혼란기에 몽골고원 지배권 확립

- AD 745 돌궐 격파후 위구르제국 건설

- AD 755 당나라 「안사의 난」 진압 후 동방세계
최강국으로 부상 (안록산 → 소그드 · 돌궐계 혼혈)

※ 만리장성 ~ 바이칼 ~ 흥안령산맥 ~ 천산산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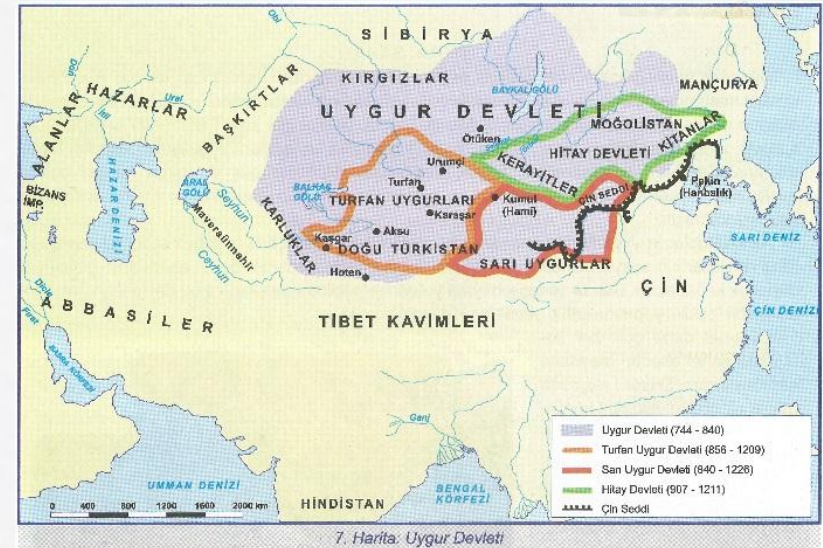
- AD 840 키르키즈에 멸망 후 간쑤 · 둔황 · 투르판
등에서 위구르계 국가 건설

■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구르인이 이동 · 진출

- 동투르키스탄 : 신장웨이우얼자치구
(166만km², 위구르인 880만명 거주)
- 서투르키스탄 : 카자흐스탄, 키르키스탄, 타지키스탄,
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아프가니스탄 (465만km²)

※ 13세기 몽골제국시 위구르인이 고려 진출(회회인)

- 회교, 회회아비(쌍화점), 처용가



◆ 위구르 제국의 성격

- 동서문화와 유목·농경문화를 융합한 국가
- 위구르의 이동은 유목민이 중앙아시아
오아시스지대에 이주·정착하는 계기
- 7~8세기 이후 오아시스의 상업 장악,
성곽도시 건설, 이슬람화·투르크화 진전
- 11세기에 투르크·이슬람 시대의 개막
- 1760년대 청(건륭제)에 복속

3(돌궐)-2.셀주크 투르크(Seljug Turk) : AD 1037~1194

- AD960년경 **셀주크** 지휘로 투르크부족이 실크로드를 따라 부하라 · 사마르칸트로 이주
 - 1037 **토그릴**이 셀주크투르크 건국
 - 1043 이란, 1055 바그다드 점령
 - 1071 비잔티움 격파(만지케르트전투)→ 아나톨리아 점령
 - 1087 압바스 왕조 칼리프로부터 “동 · 서방 술탄” 칭호 획득
 - 1090년경 전성기: 알타이산맥 ~ 중앙아시아 ~ 이란 ~ 아라비아반도 ~ 아나톨리아 ~ 이집트
 - 1097~1192 1~3차 십자군 전쟁
 - 1194 마지막 술탄 전사 후 제국 분할 소멸
 - 1077 셀주크투르크 일족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룸셀주크를 건국(수도 : 콘야)
 - 1176 비잔티움제국 격파 → 아나톨리아 완전 지배
 - 1230년경 전성기 → 1243 몽골에 복속, 1308 멸망
- ※ 최대영토 : 470만k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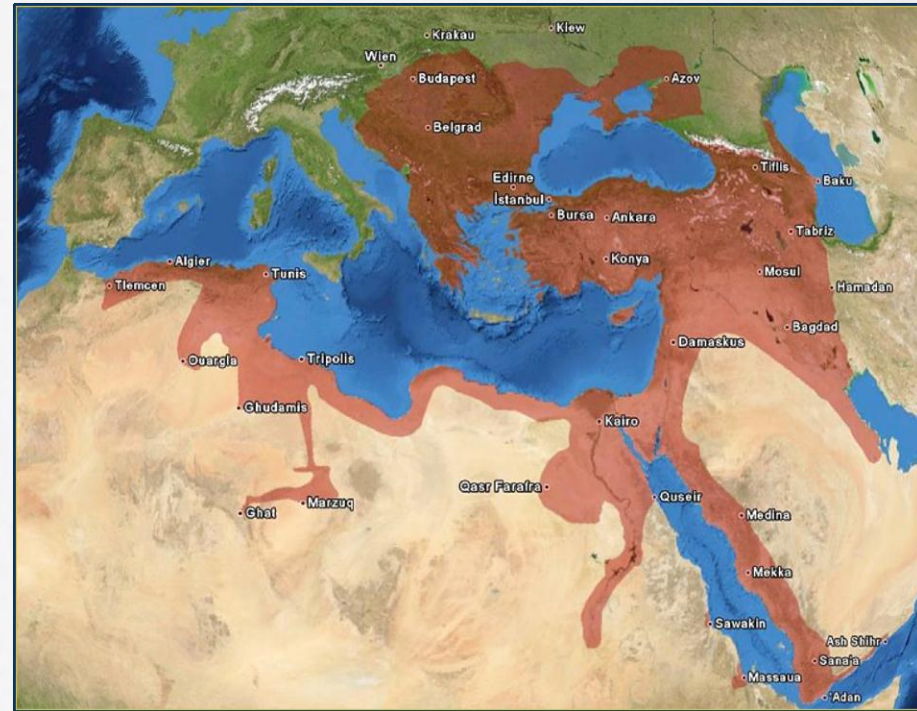


◆ 셀주크 투르크의 성격

- 투르크계 기마 유목민 세력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일대를 지배한 수니파 무슬림 왕조
- ※ 투르크족은 8C 압바스왕조의 탈라스 전투 승리 후 이슬람 세력하에 들어가 셀주크시대에 이르러 이슬람화
→ 투르크 왕이 술탄이 됨

3(돌궐)-3.오스만 투르크 제국(Osman Turk Empire) : AD 1299~1922

- 1299 룸셀주크 세력약화 후 서부 아나톨리아 지역의 **Osman 1세**가 오스만공국 건국
 - 1402 티무르군에 패배후 50년 침체 (앙카라전투)
 - 1453 동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로 천도
 - 1517 메카 점령 후 칼리프 지위 획득(술탄칼리프)
 - 16C 술탄이만 1세, 제국을 완성
 - 1571 레판토해전으로 지중해 주도권 상실
 - 1683 제2차 빈 포위 실패 후 러시아 · 오스트리아의 압박 → 헝가리, 우크라이나 상실
 - 19C 발칸반도, 이집트, 아랍지역 상실
- ※ 오스만제국 최대영토 : 560만km²



- 1923 터키공화국으로 전환
 - 바이칼 부근에서 이주를 시작한 투르크계 유목민이 아나톨리아 지방에 진출
 - 셀주크 제국을 계승한 기마유목민족국가
 - 몽골초원에서 서진을 계속하여 다민족 · 다종교 국가로 확장되어 비잔틴 · 이슬람문화를 융합



4. 몽골제국(Mongol Empire) : AD 1206~1368

- 거란 멸망(1125) 후 몽골고원은 5개집단이 분할

- 나이만, 케레이트, 메르키트, 타타르, 몽골
- 1162, 몽골족의 테무친이 부족 통합

- 1206 쿠릴타이에서 대몽골제국이 출범하고 `칭키즈칸` 칭호 부여

→ **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제국 건설**

- 1127 칭키즈칸 사후 우구데이, 구유크, 몽케, 쿠빌라이가 승계

- 몽골의 고려 침공(1231~1270)

- 삼별초포함시 42년 항쟁

- 쿠빌라이 사후 전쟁지속 → 혼란

→ 내란 → 한족반란 → 명에 멸망(136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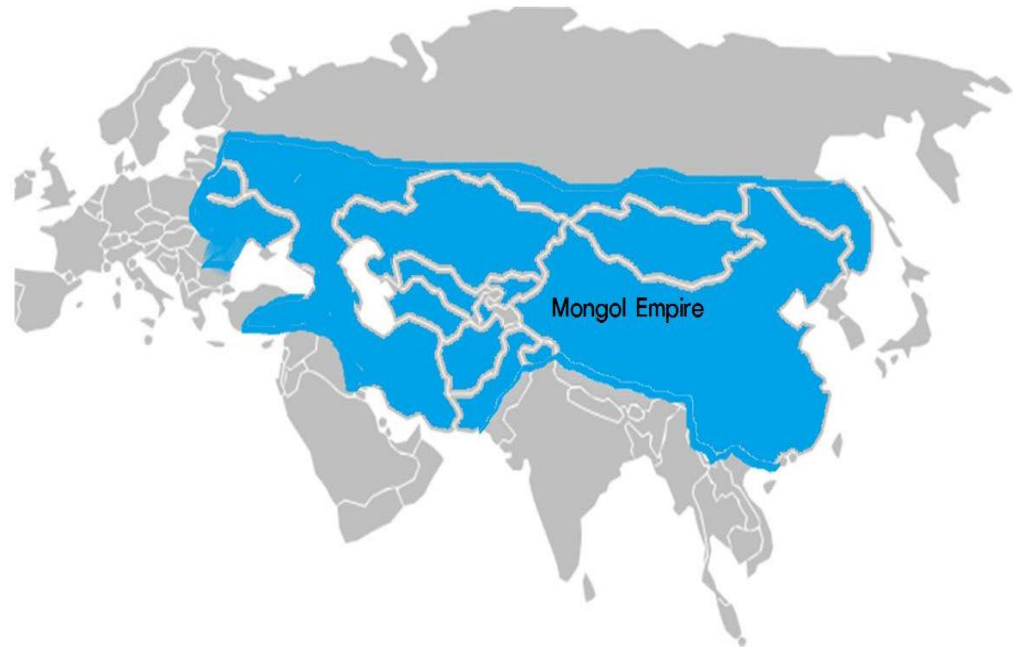
※ 최대영토 : 3,320만km²

오고타이 한국 → 원제국

차카타이 한국 → 티무르 제국

킵차크 한국 → 러시아

일한국 → 티무르 제국



◆ 몽골제국의 성격

- 기마군단의 가공할 전투력과 전술
(군단·운용·전투장비·전투력·병참·전술·전략·역참 등)로 단기간에 유라시아국가를 통합하여 세계제국 건설
- 쿠빌라이 경제정책은 자본주의·국제통상의 모델



남송
(1127~1279)

명
(1368~1661)

금
(1115~1234)

원
(1206~1368)

고려
(918~1392)

조선
(1392~1910)

헤이안시대
(794~1185)

가마쿠라시대
(1185~1333)

무로마치시대
(1336~1573)

에도시대
(1603~1863)



<헨티 : 다달솜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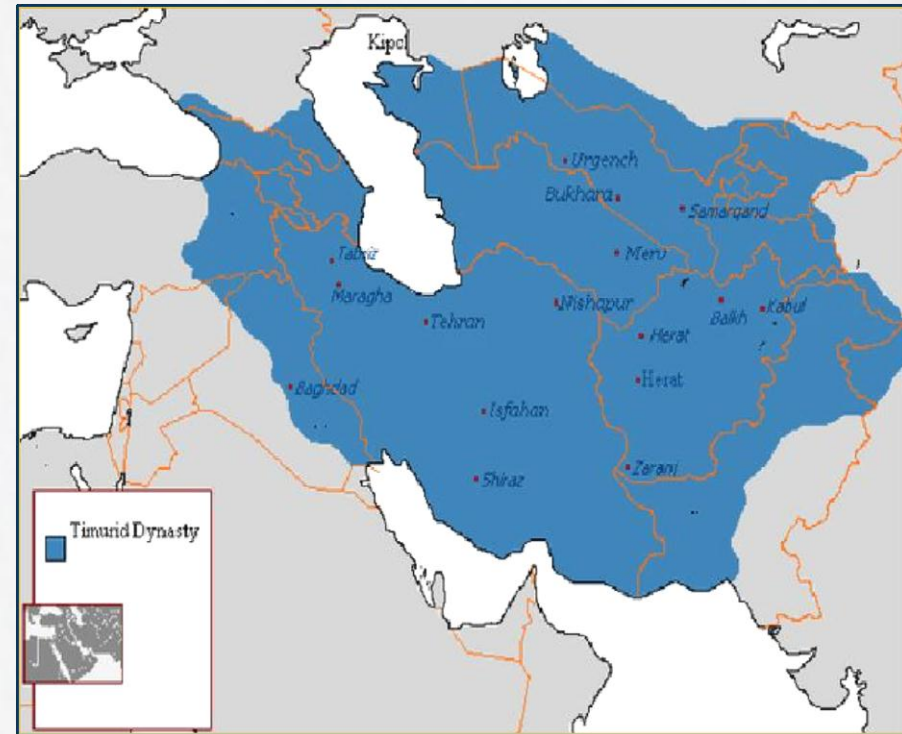
<헨티주도 : 온드르향>



<델리온 불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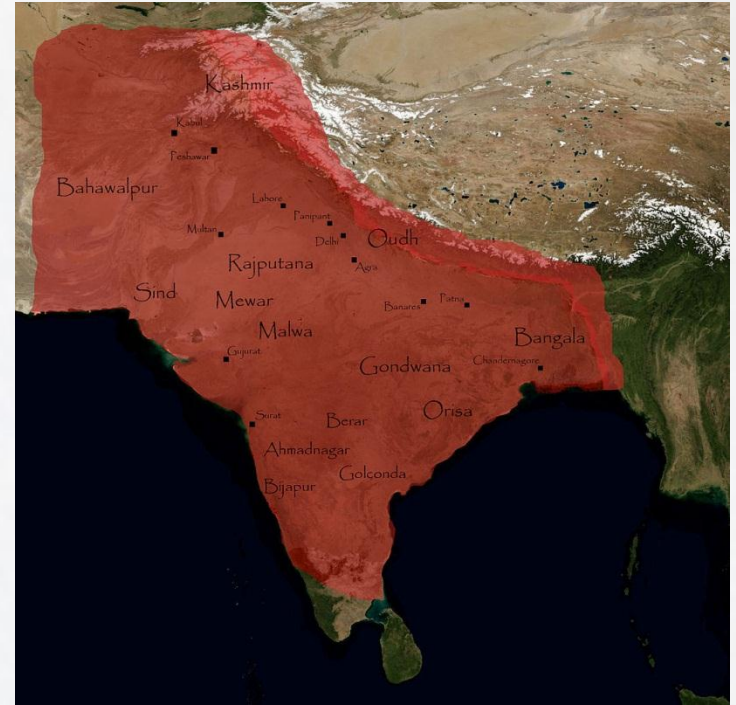
4(몽골)-1.티무르 제국(Timurid Empire) : AD 1370~1526

- 차카타이칸국의 **Timur**가 유목민 군사력과 오아시스 정주민의 경제력을 통합, 거대한 제국을 형성 (몽골재건)
 - 중앙아시아에 근거한 최대의 「투르크 이슬람제국」
 - 1371 호레즘, 1393 바그다드, 1398 델리, 1402 아나톨리아 정복(앙카라전투 → 유럽구원)
 - 중앙아시아 · 이란 · 이라크 · 아프가니스탄 · 파키스탄과 북부인도 · 아나톨리아 지역 등 지배
 - 1402 사마르칸트로 천도 → 튀르크 · 몽골 유목전통을 보전하면서 이슬람의 문학 · 예술, 고도의 문화를 수용
 - 1506년 이후 티무르 제국은 분할
- ※ 최대영토 : 380만km²



4(몽골)-2.무굴제국(Mughul Empire) : AD 1526~1857

- 티무르제국 멸망후 5대손 「바부르」가 북인도에 진출
 - 1526 바부르가 18만 술탄군대를 격파하고 무굴제국 건국
 - 3대 「악바르」는 북인도전역, 북서부편잡, 인더스하류, 데칸지역,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대제국 건설
 - 5대 「샤자한」은 올드델리, 레드포트, 타지마할 등 건설
 - 6대 「아우랑제브」는 1687년 데칸 완전정복(370만km²)
→ 힌두교도 탄압등으로 제국이 분열되고 쇠퇴하기 시작
- 15세기말 이후 포르투갈 · 영국 · 네덜란드 · 프랑스등 유럽침투가 이어지고 17세기 이후 영국의 영향력이 확대
 - 1857 세포이항쟁 진압과정에서 무굴제국은 멸망



5. 여진

5(여진)-1. 金 (Jin Dynasty) : AD 1115~1234

- 여진족 : 송화강유역에서 부상한 통구스계
 - 숙신 (肅愼: 춘추전국) → 읍루 (挹婁: 한) → 물길 (勿吉: 남북조) → 말갈 (靺鞨: 수 · 당) → 여진 (女眞: 송 · 명) → 만주족 (청)
 - 발해멸망후 그 지역은 여진(여진족)으로 지칭
 - 여진은 10세기 초 이후 거란(요)이 지배
- 1115년, 완안부 **아골타**가 흑수말갈을 통합, 金 건국
 - 1125, 송과 연합하여 요나라 멸망
 - 1127, 송을 강남으로 축출(남송) → 신하국
 - 1153, 상경회령부 → 연경으로 천도(중원장악)
 - 1234, 몽골 · 남송연합군에 멸망



◆ 여진족과 한민족

- 金史 : 금의시조 '함보'로 고려(신라)에서 왔다
- 金志大金國志 등 : 초기 여진추장은 신라인
- 고려사 : 금건국시조는 '함보'는 김준
 - ⇒ 신라종실이며 유민인 권행(본명:김행)의 둘째아들 김함보(김준)이 완안부 추장이 되어 흑수말갈까지 통합하고 발해유민이 가세하여 金 건국

◆ 한국사와 금사

- 1900년대에도 김교현(신단민사), 신태윤(배달민족정사)등에서 금사를 한국사에 포함
- 권덕규(조선유기 · 조선사)에서는 금 · 청이 고조선의 후예로 기술
- 계림(신라) = 길림(만주원류고)

5. 여진

5(여진)-2. 後金 (Qing Dynasty) : AD 1599~1912

- 1616, 통구스계의 여진부족을 통합한 **누르하치** (청태조)가 ‘후금’ 건국 (홍경에 도움)
- 1626, 홍타이지(청태종) 즉위 → ‘대청’
- 순치제(1643~1661)는 중국지배의 기초 확립
- 강희제(1661~1722)는 중국 영토를 통일
 - 1689 **네르친스크 조약**, 1712 **백두산 정계비**
- 옹정제(1722~1735)는 청나라 지배체제 확립
- 건륭제(1735~1795)는 최대영토를 지배
 - 이슬람 · 묘족 · 백련교도의 난 등 쇠퇴 시작
- 1911신해혁명, 1912년 선통제 퇴위



◆ 청나라와 한민족의 관계

-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후예가 건설
- 누르하치의 성은 “애신각라(愛新覺羅)”
- 1627(정묘호란), 1636(병자호란) 2차례 조선 침입 → 삼전도의 굴욕



Ⅲ 한민족의 고대역사 – 사라진 역사

Ⅲ-1. 한민족의 기원과 요하문명

1. 한민족의 기원과 추정 이동 경로
2. 북방기마민족과 한민족
3. 요하문명 유적의 등장
4. 홍산문화
5. 하가점 하층문화
6. 중국의 역사공정



1. 한민족의 기원과 추정 이동 경로

- 한민족의 추정기원 : 알타이산맥 남부 중앙아시아(천산산맥 천산일대)에서 바이칼을 거쳐 남하

◆ 몽골인종은 구석기 시대 후기에 시베리아 추운지방에 기원.

1) 북 몽골인

① 옛 시베리아족 : 축치 · 코리약 · 길리약 · 캄차달
(구 몽골인)

② 새 시베리아족 : 투르크 · 몽골 · 퉁구스(알타이)
(신 몽골인) 사모예드 · 위구르 · 핀(우랄)

2) 중앙 몽골인 : 중국인(화하족)

3) 남 몽골인 : 인도차이나 지역

※ 신채호

- 조선족이 최초 서쪽 파미르고원이나 또는 몽고등지에서 광명의 본거지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

※ 유 엠 부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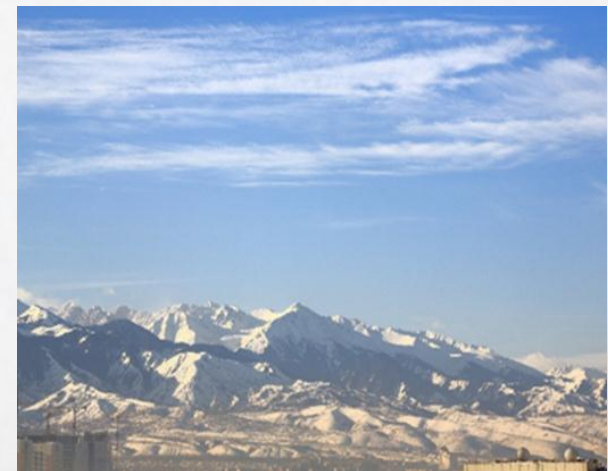
-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알타이계 종족인 예와 맥이 이주하여 조선 주민의 토대를 이룸



<바이칼호 : 러시아 이르쿠츠크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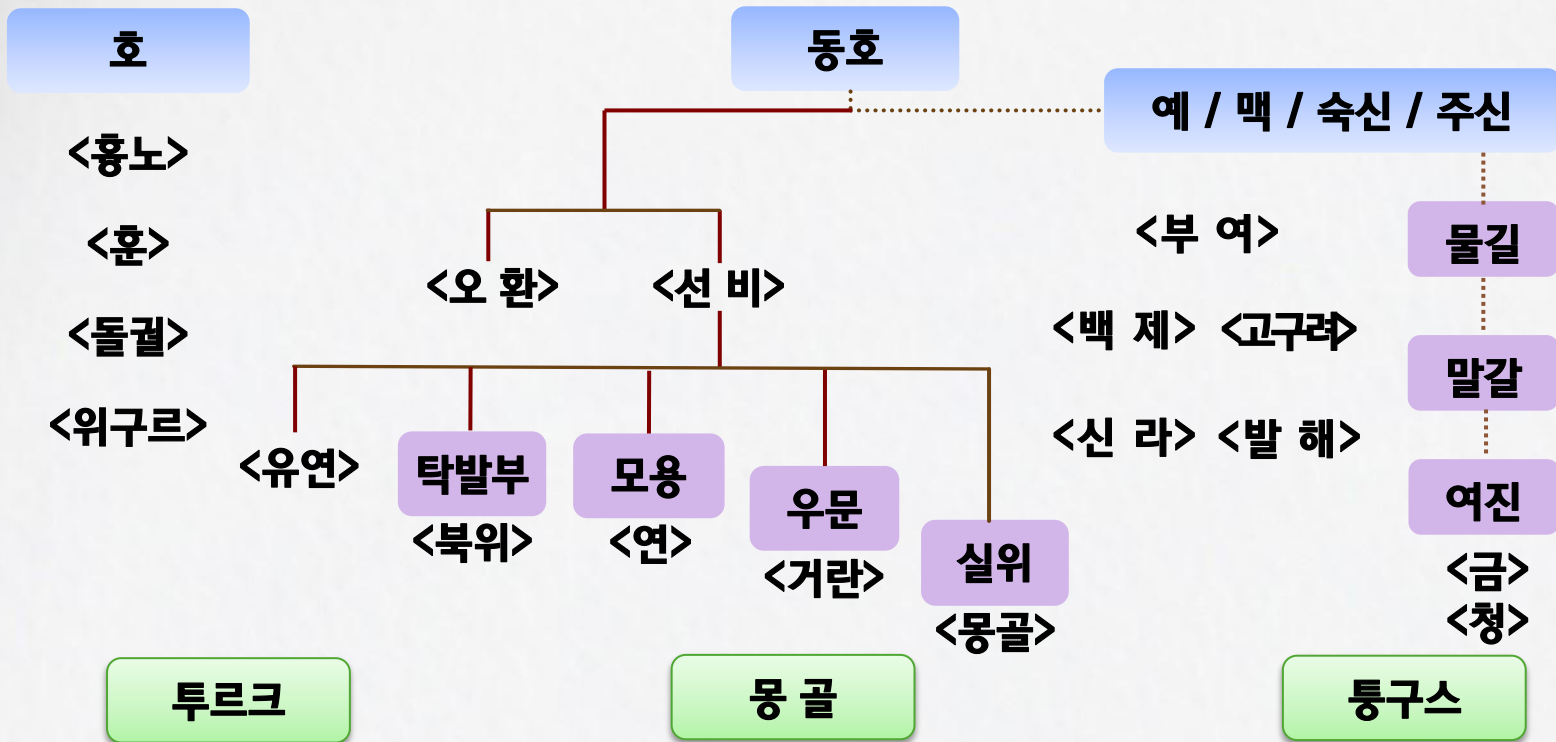


<천산 · 천지 : 중국 우루무치 동북>



<천산 : 카자흐스탄 알마티>

2. 북방기마민족과 한민족



<조선상고사>

- 홍노 · 선비 · 몽골은 아(我)에서 분리..., 여진 · 선비 · 몽고 · 홍노 등은 본래 아(我)의 동족이었다. 홍노는 조선의 속민이었다. (조선상고사)
- 우랄어족은 조선족 · 홍노족 등
 - 조선족은 조선 · 선비 · 여진 · 몽고 · 통구스 등의 족이 됨.
 - 홍노족은 돌궐 · 헝가리 · 터키 · 핀란드 등의 족이 됨.

3. 요하문명 유적의 등장

- ◆ 소하서 문화 (BC 7000~6500): 신석기
 - 동북 아시아 최고의 문화 유적
- ◆ 홍릉와 문화 (BC 6000~5700): 신석기
 - 최고의 옥, 빗살무늬 토기
- ◆ 사해 문화 (BC 5600~): 신석기
- ◆ 부하구 문화 (BC 5200~5000): 신석기
 - 최고의 골복 발견
- ◆ 조보구 문화 (BC 5000~4400) : 신석기
 - 빗살무늬토기, 채도
- ◆ 홍산 문화(BC 4500~3000): 동석 병용
- ◆ 소하연 문화 (BC 3000~2000): 동석 병용
- ◆ 하가점 하층 문화 (BC 2400~1500): 청동기

요하문명과 한민족

- 1) 빗살무늬 토기
 - 홍릉와 문화 이후 모든 요하문명에서 발견
 -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만 발굴되며
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대표 유물
- 2) 옥기
 - 홍릉와 문화 초기 옥귀걸이는 한반도 옥기 유적과 유사(고성 문암리 신석기 유적)
 - 요하문명의 한반도 진출을 입증
- 3) 골복문화
 - 상나라를 건설한 동이 족이 한반도까지 전파
- 4) 돌무지무덤(↔한족의 토갱묘)
 - 우하량 돌무지 무덤은 만주와 한반도 고대 무덤과 일치

※ 메소포타미아 문명 : BC 5900 ~ , 에게문명 : BC 3600 ~ , 인더스문명 : BC 3300 ~

※ 산둥지역 : 용산문화 (BC 2800 ~ BC 2000)

<참고> 古代 동북아 지배 세력 : 동이족

- 중국 통일(한제국)전 황하주변에서 동이족과 화하족이 동서로 대립
 - ⇒ 통일 후 중국내 동이족은 중국세력에 포함, 이후 만주, 한반도, 왜열도 등에 거주하는 민족
- ※ 동이족 활동 범위 (서량지: 중국사전사화)
 - 산둥성, 하북성 발해연안, 하남성 서북, 안휘성 중북부, 호북성 동쪽, 요동반도, 한반도
- 당가홍(唐嘉弘)의 동이고국사론(東夷古國史論)
 - 동이의 역사는 근원이 아득할 뿐 아니라 명맥이 유구함
 - 그들은 중국문명에 비범한 공헌을 하였고, 황하문명의 주요한 근원 중 하나
 - 아메리카 대륙과, 남태평양제도의 개발에도 지울 수 없는 공적을 남김
- ※ 편두풍습은 메소포타미아, 홍산, 만주,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
- 부사년(傅斯年)의 이하동서설(夷夏東西說)
 - 중국 고대문명을 남북간 구조에서 동서간 대립으로 인식
 - ⇒ 하 · 주 중심의 역사에서 동방의 이(夷)의 존재와 역할을 제기



<테오티우칸>



<치첸이사>



<마추픽추>

4. 홍산문화 (BC4500~3000) : 세계를 놀라게 한 대발견

- 1920년대 이후 내몽고, 요령성 접경의 홍산지역에서 신석기유적을 발견(BC4500~3000)
 - ※ 발굴이 계속되고 있고, 최고 BC 7000까지 소급되는 신석기 문화 → 중국은 「요하문명」으로 명명
- 1983~85년 홍산지역 「우하량」에서 BC3500~3000년의 대규모 유물 발굴 : 홍산만기문화
 - 「대형제단」, 「여신묘」, 「적석총」, 「옥기묘」 등
 - 초기국가 단계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회로의 진입 (청동기시대야 국가가 성립 될 수 있다는 가설을 파기)
 - ①계급이 완전 분화, ②사회적 분업, ③초기 문명 유물
 - ➔ 세계를 놀라게 한 대발견, 문명사를 다시 쓰는 전기 (4대 문명권보다 1~2천년 앞선 고대국가 존재)



※ 중국의 양소 · 하모도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권

- 고조선 · 부여 · 선비 · 거란 · 말갈 등 동이족 무대

➔ 우하량 유역 홍산문화는 「배달국」 존재와 관련

※ 삼성기 등의 기록상 배달국 : BC3897~2333(1565년)

※ 이 지역에서 남하한 동이는 상나라를 건국해서 중원을 통일하고 (BC1600) 주나라에 의해 다시 동북지역으로 이동 (BC1046이후)



5. 하가점 하층문화 (BC2400~1500)

- 1960년 홍산지역 적봉근교에서 대규모 유적층이 발견
 - 홍산문화와 앞뒤로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계승
 - 석성, 돌무덤, 제단, 청동기, 채색회도, 옥기 등
 - 요서지역에서 중국 하나라와 대적하는 매우 강성한 국가의 결정적 증거

- 하가점 하층문화는 BC2400년경까지 추정



- BC 10세기 하가점 일대가 추워져 초원지역화하여 하가점 하층문화는 이동
 - 낭하~대릉하 지역으로 이동 (비파형 동검)
 - 하가점 지역은 고비사막의 황토가 퇴적 → 그 위 초원에서 하가점 상층문화 형성

➔ 하가점 하층문화(BC2400~1500)는 고조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 (윤내현, 이형구, 신형식, 복기대, 우실하, 심백강, 이종호)

- 상나라에 밀려 요동 서북한 지역에 조선건국 (BC.10C 「관자」의 고조선)(정형진)

6. 중국의 역사 공정

- 황하문명보다 빠른 홍산문화의 발굴 → 중원 중심론에 타격
 - 동이족의 홍산문화를 중국역사에 편입할 필요 → 다민족 역사관으로 전환 → 요하문명론
- 요하 문명론
 - 만주지역의 서쪽인 요서 지방과 요하 일대가 중국문명의 시발점
 - 요하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고대민족과 역사는 중국의 몫
 - 요하 일대에서 기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의 후예
 - 요하 일대를 황하문명보다 앞서는 요하문명으로 재정립

⇒ 단군·웅녀·주몽은 황제의 후예, 고조선·부여·고구려·발해 등 고대 한민족사는 중국사
- 하상주 단대공정 (1996~2000)
 - 하(BC2070~1600) · 상(BC1600~1046) · 주(1046~771) → 단군시대의 역사 복원
- 중화문명 탐원 공정 (2001~2006)
 - 요하 일대를 4대 문명보다 앞서는 새로운 문명권으로 부각 (요하문명론)
 - 중화문명의 기원을 황하 → 요하유역으로 → 환웅시대의 역사 복원
- 서남·서북·동북 공정 : - 중국의 분열 방지 대책

Ⅲ 한민족의 고대역사 - 사라진 역사

Ⅲ-2. 사라진 한민족 고대역사를 찾아서

1. 환국 (桓國)
2. 배달국 (倍達國)
3. 단군조선
4. 고조선의 분열과 부여시대



1. 한국 (桓國) : 동북아 문명의 발원

■ 한국에 대한 기록

- 삼국유사(일연), 약천집(남구만), 풍암집화(유광익), 수산집(이종휘)

◆ 삼성기 · 태백일사의 기록

- 환인시대 : BC7197~3897 (3301년)
- 천산(파내류산) 아래, 천해(바이칼호) 동쪽, 남북 5만리·동서 2만리 : 9환족의 12연방
 - 비리, 양운, 구막한, 구다천, 일군, 우루, 객현한, 구모액, 매구여, 사납아, 선비, 수밀이
 - 인류의 시원 문명

<7대 桓人>

- ①안파견 ②혁서 ③고시리 ④주우양 ⑤석제임
- ⑥구을리 ⑦지위리

※ 최남선의 불함문화권 : 한국



※ 환족이 동서로 분화

- 수메르(Sumer) : 동방고원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동, 흑발 황색인종, 교착어(BC5000~)
(한국에서 서방으로 진출 → 서양 문명의 기원)
- 배달 : 한국의 장자족이 동쪽으로 이동 [동이]

2. 배달국 (倍達國) : 한민족이 동북아에 세운 최초국가

■ 배달국(신시 · 환웅천왕)을 기록한 문헌

- 삼국유사(일연), 동국사략(유희령), 신증동국여지승람(이행), 약천집(남구만), 해동이개(홍만종), 규원사화(북애자), 수산집(이종휘), 동사강목(안정복) . . .

※ 중국역사에서는 동이(東夷)로 기록

■ 치우천황은 중원을 개척하여 「청구국」을 건설하고 황제에 탁록대전에서 대승(BC2600)

※ 관자(管子) : “치우는 금으로 병기를 만들었다.” 사기(史記) : “치우의 형제 81명은 동두철액이다.”

■ 우하량의 홍산문화(BC3500~3000)는 배달국의 유적 추정

◆ 삼성기 · 태백일사의 기록

- 배달국시대 : BC3897~2333(1565년)
- 신시를 수도로 흑수(흑룡강) ~ 백산(태백산, 백두산)에 건국
- 태호복희, 염제신농의 등장

<18대 환웅이 통치>

-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① 환웅천황 | ② 거불리 | ③ 우야고 | ④ 모사라 | ⑤ 태우의 |
| ⑥ 다의발 | ⑦ 거련 | ⑧ 안부련 | ⑨ 양운 | ⑩ 갈고 |
| ⑪ 거야발 | ⑫ 주무신 | ⑬ 사와라 | ⑭ 자오지(치우) | |
| ⑮ 치액특 | ⑯ 축다리 | ⑰ 혁다세 | ⑱ 거불단 | |



3. 단군조선 (고조선) : 응비하는 한민족국가

■ 단군조선 기록 : 삼국유사 BC 2308년, 동국통감·해동이적·동국역대총목 BC 2333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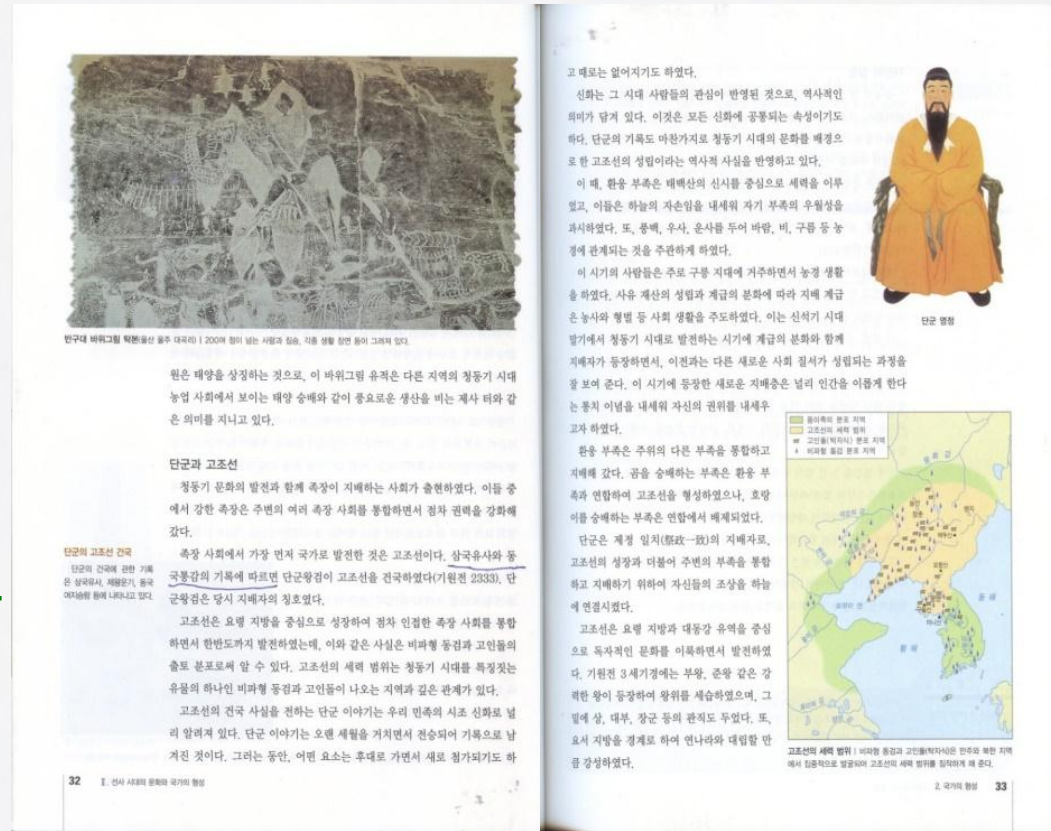
※ 중국 사서의 고조선 : 사기·한서·산해경·관자...

■ 우리 주류 학계는 BC 2333년 고조선 건국을 인정하지 않음 (단군 → 신화)

- i) 청동기 시대에야 국가가 성립 가능
- ii) 청동기문명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파되었으므로 유럽·중국·시베리아보다 앞설 수 없음
- iii) 청동기시대는 만주 BC 15~13세기 한반도 BC 10세기 시작(비파형 동검)

⇒ 반론

- i) 청동기 시대 이전에도 국가가 성립
- ii) 청동기 문명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
 - 와르세(덴) : 극동아시아 → 유럽으로 전파
- iii) 한반도 남단·중부·만주 지역 청동기는 BC2500년경 시작된 것으로 확인
 - Sarah Nelson(美) : 양수리 고인돌 유물이 BC 2665~2140년으로 추정
 - 하가점 하층문화 : BC2410년



EBS 한국사수능(207p) → 고조선 부분 1p

1 한국주류사학계의 고조선

- ◆ 고조선은 BC10세기 경에 탄생하여 대체로 영토가 작았고 BC2세기 무렵에 국가(위만조선)가 성립
- ◆ BC108년 평양지역에서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설치. 낙랑군은 평양을 400년간 지배

■ 한국사 신론(이기백)의 고조선

-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위치
- 군 하나 정도를 지배하는 조그마한 정치적 사회
- 고조선 부족국가는 [BC 4세기경] 대동강과 요하유역 여러 부족국가와 연합, 하나의 커다란 연맹체를 형성
- 위만이 준왕을 축출하고 위씨조선을 건설 (BC 194)
- 漢은 위씨조선을 멸망시키고 (BC 108) 한사군을 설치

■ 한국통사(한우근, 1971)

- 「단군왕검」을 시조로 요하유역을 중심으로 대동강 유역에 걸쳐 부족연맹세력 등장 [BC 4세기경]
- 한사군은 모두 고조선 토착사회의 기반위에 설치

■ 한국사통론(변태섭, 1998)

- 고조선은 BC 5~4세기경 초기국가 형태로 발전
- 낙랑군과 조선현은 대동강유역
- 단군왕검은 평양에 자리잡은 소국의 군장



2 中國史의 기록으로 본 고조선

- 遼史(요하지역 동경에 대한 기록)
 - 동경 요양부는 본래 조선땅이다 (고조선의 존재와 영역에 관한 기록)
 - 조선은 40여대를 전해 내려왔다
 - 연나라사람 위만이 옛 공지에서 왕이 되었다 (위만의 땅이 요동지역)
 - 한무제가 조선을 평정하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(요동지역의 사건)
- 삼국지 - 연나라는 동호(고조선) 땅 2000여리를 취하고 만번한(滿潘汗)을 경계로 삼음.
 - 고조선 국경은 난하와 갈석
- 한서리지리 : 왕검성은 패수(대릉하)의 동쪽
- 管子 : 변조선과 제나라의 교역 언급
- 山海經 : 고조선이 연나라와 접경한다고 기록
- 史記 - 위만조선만 기록
 - 고조선 국경은 난하와 갈석
- 무경총요 : 「조선하」 (=패수, 고조선국경)는 북경서북쪽을 흐르는 「조하」
- 태평환우기 : 하북성 노릉현에 「조선성」이 있음.
- 진서 : 시라무렌강 유역의 선비족 모용황을 조선현의 '조선공'에 봉함.

3 조선상고사(단재신채호)가 밝히는 고조선 (1931)

- 대단군 왕검이 고구려 건국 이전 2천년전 하얼빈에서 조선개국
 - 상경(𪎮 스라) : 하얼빈 → 「신한(辰韓)」이 직접 통치
 - 중경(아리티) : 개평 → 「불한(卞韓)」이 통치
 - 남경(펴라) : 평양 → 「말한(馬韓)」이 통치
 - BC 10세기경부터 오륙백년간 대단군 조선의 전성기, 연·진·제와의 전쟁으로 쇠약
- 고조선은 BC 4세기경 삼조선으로 분리 (삼한)
 - 1) 신조선(=진조선) : 왕검자손(해씨)이 통치
 - 흉노와 대립(사기흉노전)
 - 신조선유민은 낙동강우편에 「진한부」로 유입
 - 2) 말조선(=막조선) : 한씨가 통치
 - 월지국으로 천도하여 「마한」으로 개칭 → 불조선왕 기준이 정복 · 통치
 - 3) 불조선(=변조선) : 기씨가 통치
 - 연과 대립, 위만의 반란으로 패망
 - 불조선 유민은 낙동강우편일부에 「변한부」로 유입
- 사기조선전 : 불조선 → 조선
- 사기흉노전 : 신조선 → 동호

<기록으로 본 고조선 도읍 중심지>



4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(1963)

■ 고조선 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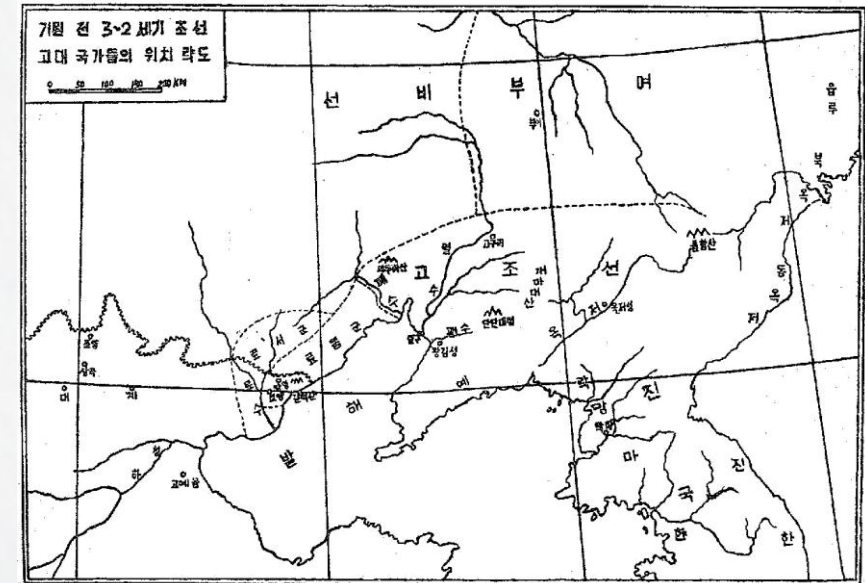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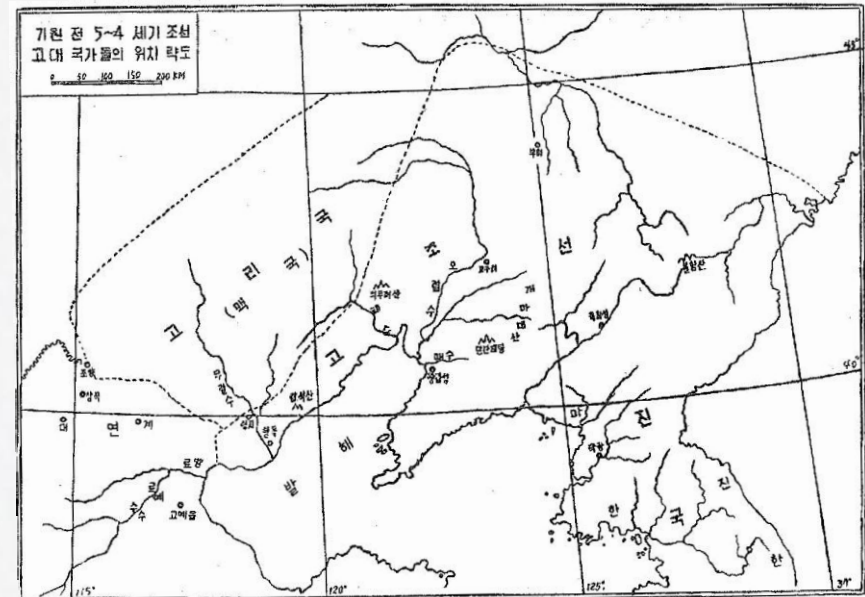
- BC 3C 초까지 요동 · 요서 · 우북평(석성)에 이름
- ※ 고대의 요동은 요하가 아닌 난하 동쪽
- 난하 하류 좌안 지대인 창려는 고조선의 도읍지
- 한사군은 한반도에 위치하지 않았음

■ 고대 조선 종족

- 기원전 2천년전 조이(鳥夷)가 살던 곳에 예와 맥이 북방에서 남하하여 혼합
- 기원전 1천년경 예 · 맥 · 한을 형성(동일한 언어와 풍습을 가진 족)

① 예족 : 하북성~요서 · 요동일대와 송화강 유역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에 거주
→ 고조선 · 진국(삼한)형성

② 맥족 : 흉노와 장기간 인접하던 동호로 북방족의 범칭. 예족과 동일한 종족의 두갈래
→ 고리국 · 부여 · 고구려 형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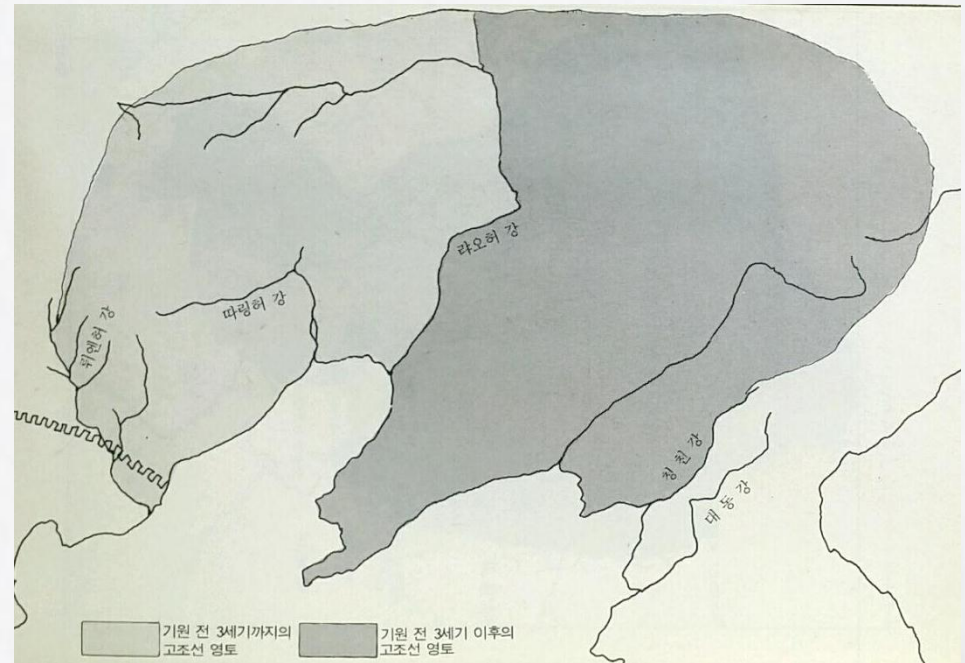
5 유 엠 부편의 「고조선 역사 · 고고학적 개요」 (1982)

■ 고조선 영역

- BC 3000년대말~2000년대초에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청동기 시대 시작
- 기원전 3세기까지는 난하가 경계
- 기원전 3세기 이후 요하가 경계
- 기자조선은 한대에 조작된 사료

■ 고조선 인종구성

- 알타이족 이주자들이 고조선 주민의 근간을 이룬 예맥족의 선조인 원시 한민족
- 단군신화는 BC3000년대후반~100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대한민족 특히 예맥족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(중앙아시아 →남만주)로 이주해 가는 과정을 반영



6 고조선연구 (윤내현, 1994)

- BC2400~2300년경 아사달(아침땅=조선)이 주변 고을나라들을 통합하여 한국사 최초 국가 「고조선」 건설(BC100년초 분리)

※ 비파형동검 연대(BC1000~900년) 전에도

만주 · 한반도에 청동기 시대 존재 확인

- 고조선의 출현으로 아사달족(조선족)을 중심으로 한민족이 형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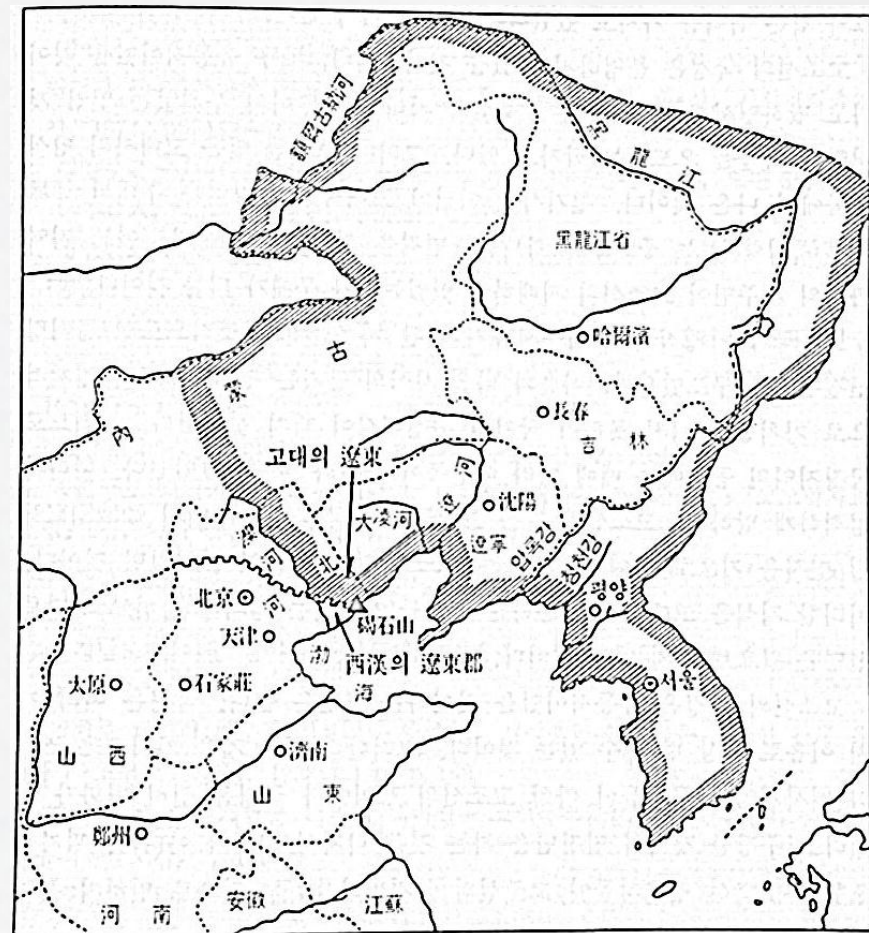
- 고조선은 한반도 · 만주전지역을 지배하던 대국

- 서쪽 : 난하 · 갈석산, 북쪽 : 아르군 강,
동북쪽 : 흑룡강 · 연해주, 남쪽 : 남부해안
- 부여, 고죽, 고구려, 예, 맥, 기자국, 진번, 낙랑,
임둔, 현도, 숙신, 청구 등... 거수국 통치.

※ 기자국, 위만조선, 한사군 등은 고조선 서부 변경인 난하유역에서 일어난 사건

- 단군은 대대로 계승

※ 단기고사 · 단군세기 · 규원사화의 단군 47세 소개



(고조선 후기의 강역도 :

한반도 + 동북3성 + 하북성동북부 + 몽고자치구동부)

7 단군세기 등 기록으로 본 고조선

■ 단군시대 : 47대 2096년 (BC 2333~238)

① 송화강 아사달시대(흑룡강성 아사달) : 삼한

- 1~21세 단군(1048년)

- 삼한 : 진한(요동, 만주), 변한(요서),
마한(한반도)

② 백악산 아사달시대(길림성 장춘) : 삼조선

- 22~43세 단군(860년)

- 삼조선 : 진조선, 변조선, 막조선

③ 장당경 아사달시대(요령성 개원) : 대부여

- 44~47세 단군(188년)

- 삼한관경제가 붕괴 → 국호 변경

① 왕검 ② 부루 ③ 가륵 ④ 오사구
⑤ 구을 ⑥ 달문 ⑦ 한울 ⑧ 우서한
⑨ 아술 ⑩ 노을 ⑪ 도해 ⑫ 아한 ⑬ 흘달
⑭ 고불 ⑮ 벌음 ⑯ 위나 ⑰ 여을 ⑱ 동엄
⑲ 종년 ⑳ 고흔 ㉑ 소태 ㉒ 색불루
㉓ 아홀 ㉔ 연나 ㉕ 솔나 ㉖ 추로 ㉗ 두밀
㉘ 해모 ㉙ 마휴 ㉚ 내휴 ㉛ 등을 ㉜ 추밀
㉝ 감물 ㉞ 오루문 ㉟ 사벌 ㊱ 매륵
㊲ 마물 ㊳ 다물 ㊴ 두홀 ㊵ 달음 ㊶ 음차
㊷ 을우지 ㊸ 물리 ㊹ 구물 ㊺ 여루
㊻ 보을 ㊼ 고열가

<참고> 고대사를 기록한 논란의 3사서

환단고기 : 전해오던 고대사 자료를 1911년 계연수가 편찬

	저자	시대	
삼성기 상	안함로	신라	환국, 배달국, 고조선 건국
삼성기 하	원동중	고려(?)	환국, 배달국 역사
단군세기	이암	고려말	47세 단군 역사
북부여기	범장	고려말	부여사
태백일사	이맥	조선중종	환국, 배달국, 고조선, 고구려, 발해, 고려사

단군세기 : 729년, 발해 대야발저(대조영 지시로 13년간 탐사)

- 발해문을 825년 한문(황조복) → 1949.59년 국한문 번역
- 47세 단군 기록(2096년)
- 단군조선과 별개의 기자조선(42세:1097년) 기록

규원사화 : 1675년, 북애(北崖)가 저술

- 「조대기」(멸실)를 참고한 「진역유기」(고려공민왕, 이명)등 40여 사서를 참고
- 복희의 팔괘창시, 치우천황의 정벌과 탁록대전
- 47세 단군재위기록(1195년 : 단기고사, 단군세기와 재위기간 차이)

8 고조선의 분열과 부여시대

- 신채호: “부여는 「신조선」의 별명이고
신조선에서 북부여 · 동부부여 · 남동부여가
나온것”
- 고조선(대부여) 멸망 후 해모수가
북부여 건국 (BC 239~58)
 - ① 해모수단군 ② 모수리 ③ 고해사
 - ④ 고우루 ⑤ 고두막(동명왕) ⑥ 고무서
 - ※ 북부여는 고조선을 계승하고 고구려로 역사가 이어짐
- 동부여(BC86 ~ AD22) : 북부여에서 분리
 - ① 해부루 왕 ② 금와 ③ 대소
 - ※ 갈사부여, 연나부 부여로 이어지다 494년
고구려에 병합
- 남삼한
 - 말조선 : 남쪽 월지국으로 천도(익산)
→ 불조선 기준에 멸망 → 말한 : 마한
 - 신조선 : 낙동강우안에 정착(경주) : 진한
 - 불조선 : 낙동간우안에 정착(김해) : 변한

진조선 (요동 · 만주)

- 북부여 등
- 고구려
- 발 해

변조선 (요서)

- 위만조선
- 한사군(?)

말조선(한반도)

- 낙랑국(북부)
- 남삼한(남부)
- 말조선 → 마한
- 신조선 → 진한
- 불조선 → 변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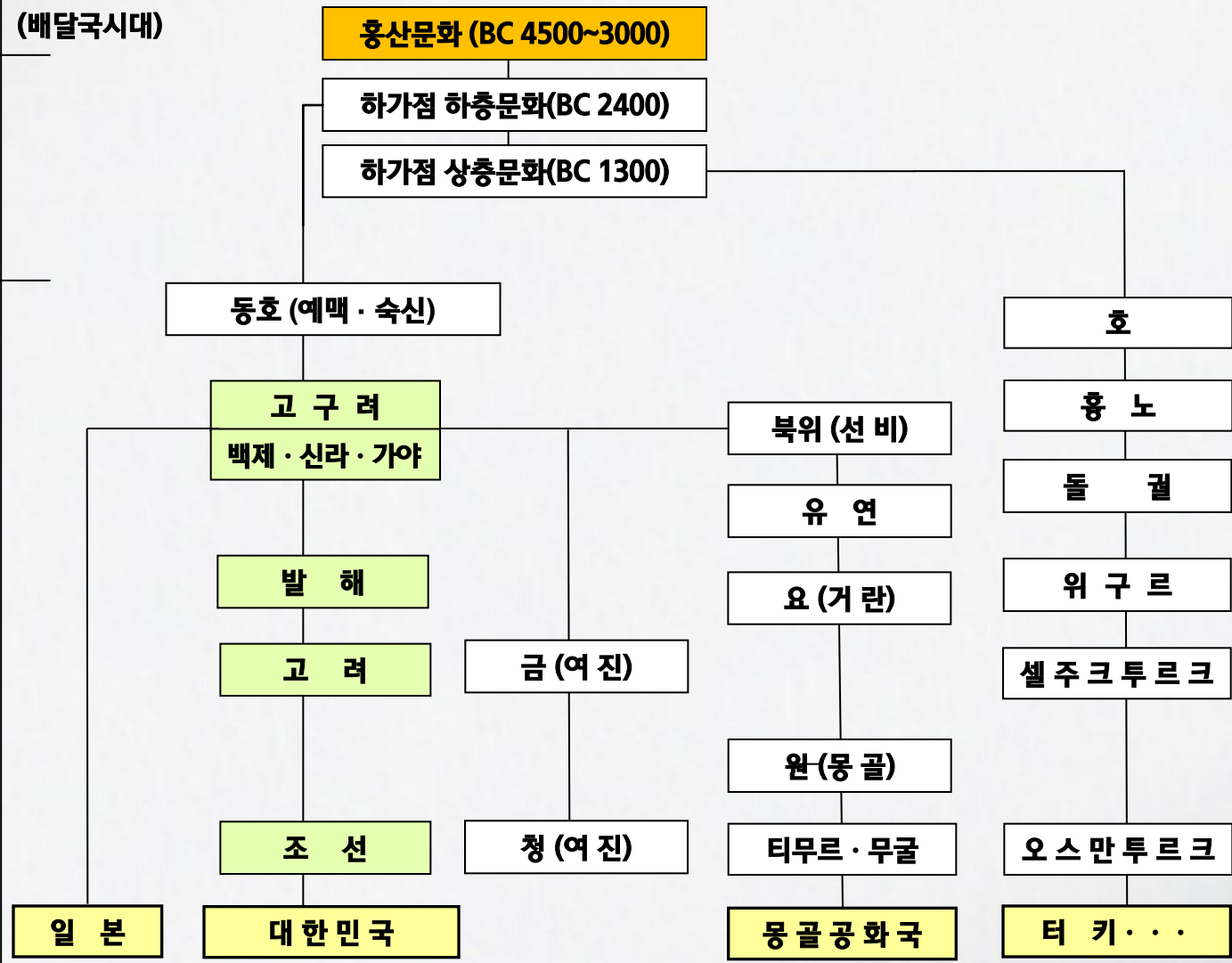
<조선상고사>



후기신석기시대 (배달국시대)

청동기시대
(고조선시대)

철기시대





맺음말

1.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초 · 최강의 문화국가로 성장

- ❑ 한반도 · 만주 등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하는 제국 건설
- ❑ 한반도로 영역이 축소되면서 세력이 약화



중국

- 황하 중류에서 우리 민족보다 늦게 형성된 문화
- 중원으로 확대된 이후 북방 이민족과 교류·투쟁
 - ➔ 중앙아시아로 진출, 유럽 등 세계와 교류확대
- 근대화가 지연되었으나 개방으로 세계화 성공
 - ➔ 세계 강국으로 성장



일본

- 국가형성 지연(AD 670년), 섬나라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정체성 확보
-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문화를 적극 수용
 - ➔ 세계전략 추진
- 제1,2차 세계대전 참전
 - ➔ 경제·과학기술 대국



우리나라

-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강국가를 건설 하였으나 고구려·발해의 맥을 상실
 - ➔ 한반도로 영역 축소
- 대외교류의 지리적 장애
 - 반도국가: 삼면이 바다
 - 만주세력과의 단절
 - 황하 유역은 중국이 장벽
- 근대 초기 쇄국정책 ➔ 발전 정체

- ❑ 인류사회·문화는 서로 다른 것과 충돌·상호작용하면서 성장 발전
 - 상호간의 영향·보완·자극·경쟁·투쟁 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➔ 한민족의 미래는 열린 세계와의 적극적인 교류·협력에서 찾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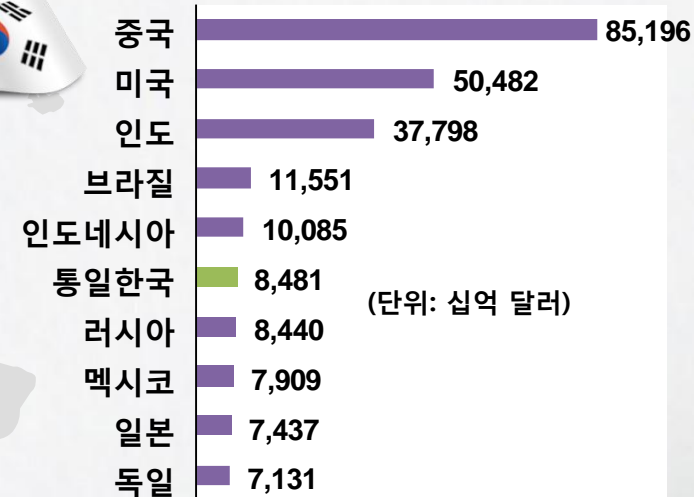
2. 미래의 통일 한국 : 2046년 세계 6위 경제대국

- 역동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경제운용과 남북통일 ⇒ 세계 중심국가로 등장
- 2021년 이태리를 제치고 10위에 진입, 2046년 러시아를 제치면서 6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

통일 한국의 위상: 경제강국을 넘어 경제대국으로



2046년 세계경제 10대 국가



주: 2013년 US dollar 기준

주: 1. 연도는 남북한을 합한 GDP 규모가 해당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기

2. 2014~205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2.6%(남한), 5.2%(북한), 물가(디플레이터)상승률은 1.7%, 원/달러 환율은 800원까지 절상 가정

3. 신흥국 중 인도네시아는 2042년에 한국을 앞설 것으로 추정

자료: IMF, *World Economic Outlook* (2014.10); Goldman Sachs, *The Long-Term Outlook for BRICs and N-11* (2009); *A United Korea?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* (2009);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, *Global Trends 2025* (2008) 등 참조